



##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 인천

이제, 모바일에서  
인터넷방송 Mint-TV, 인터넷신문 I-View  
월간지 <굿모닝인천>을 보세요.

인천광역시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천시미디어'를 서비스합니다.



'인천시미디어'를 보려면

하나.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둘. QR코드를 스캔

셋. smart.incheon.go.kr로 접속

2011 / 5

Special 어린이 꿈제작소

인천孝 '효' 면면히 살아 움직이다

2014 인천AG Tibet, 라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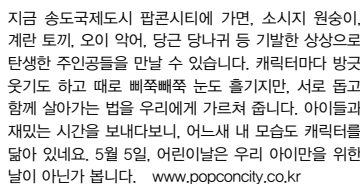
Old But New 용현동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6 **Event** 5월 페스티벌

08 **INCHEON 2014 AG** 포스터

10 **Special** 어린이 꿈제작소

18 **가정의 달 5월** 인천 **孝**

22 **책 읽는 인천** 독서가족

24 **2014 인천AG** Tibet, 라싸

28 **Old But New** 용현동

32 **Culture News** 문화뉴스, 이달의 공연전시

34 **사람과 사람** 조하영, 김효민

38 **당신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사업

40 Civic News 시정뉴스  
44 Council News 의정뉴스  
48 별난 물건, 별난 역사 도량  
50 외국인 칼럼 인천에서 꿈을 되찾다  
51 건강백세 편도선 수술 해야하나요?  
52 Infobox 생활정보  
56 Spot the Difference 틀린그림 찾기  
57 Reader's Photo 김치찰칵  
58 모닝커피 한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10 Special | 어린이 꿈제작소**  
**아이야! 꿈 따라 가자**  
 어린이절 경험 하나하나의 아이의 미래를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 인천에 펼쳐진 어린이 체험관에서 내일을 향한 꿈을 활짝 피우자. “아이들이~ 꿈 따라 가자. 너는 훌륭한 과학자도, 예술가도, 외교관도 될 수 있단다.”

24 2014 인천AG | 하나되는 아시아

**맑은 영혼을 간직한 순수의 땅, Tibet 라싸**

모든 티베트인들이 평생에 걸쳐 꿈꾼다는 티베트의 주도(州都) 라싸로의 여행. 티베트인들에게 라싸는 수도(首都)가 아니라 평생의 염원을 실현하는 순례길의 정점이다.

28 Old But New | 용현동  
**늙음과 젊음, 그 자유를 허(許)하는 용현벌**  
 60년 전 고향을 뒤로 한 피난민들은 '자유'를 찾아 등지 뜬 것에 만족하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대학생들은 캠퍼스의 '자유'를 만끽하며 그 곳에서 살아갔다 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enews.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www.facebook.com/visionincheon)을 통해 인천과 만나세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라면, 쓰든 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 인천시민이어서 자랑스롭습니다

서울에서 65년을 살다 3년 전 인천으로 이사왔습니다. 노년의 나이이지만 무엇이든 하고 싶어, 사이버시티센터에서 컴퓨터 초급반 과정을 마치고 지금 중급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더 넓게 소통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인천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_ 임옥신 계양구 병방동

## 옛 추억의 낭만이 좋아

언제나 유익하고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전해 주는 <굿모닝인천> 이번 호에서는 '다방 그곳은 여전히 영업 중' 기사가 읽기 좋았습니다. 커피전문점이 대세인 요즘 다방의 정서와 추억이 남아있는 곳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낭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굿모닝인천> 덕분에 향수어린 기억에 빠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_ 손민 서울시 구로구

## 인천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달리고파

'인천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기사를 보며 자전거타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란다에 고이 간직해 둔 자전거를 바라보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봄 날씨가 그리웠는데 가슴속 시원하게 인천 곳곳을 달려보고 싶더군요. 연둣빛 신록을 보며 시원스레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천의 자전거길을 소개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_ 강예숙 연수구 연수1동

## '취업과 교통'에 관한 조언

인천은 항구도시이자 공업도시이기에 생산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 사무직은 열악한 상황에 성별의 차이를 두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연구직은 자연과학에 집중한 상황이라서 아쉽게 느껴집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조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조화가 이뤄져 직업의 편중현상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인천 내에 인구이동이 많아지면서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굿모닝인천>에서 이 사실을 시민에게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_ 박종형 남동구 구월4동

## 커피처럼 진한~ 여운이 있던 전시

'서양 양탕 국민음료로' 커피와 관련된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평소 커피를 좋아해서 관심 있게 보았고, 시립 박물관에서 열린 '커피, 양탕국에서 커피믹스까지' 특별전도 직접 찾아가 관람했습니다. 재미있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전시물도 시선을 끌고 전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커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_ 차유리 연수구 연수동

## 인천을 다시 보게 됐어요

동사무소에 갔다가 우연히 <굿모닝인천>을 보았는데, 내용이 알차서 집에 가져와 아이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인천에 5년 가까이 살면서도 나들이를 갈 때면 인천이 아닌 서울을 비롯한 타지로 갔었는데 책을 보며 가고 싶은 곳이 많아졌습니다. 자전거 여행도 하고 싶고, 원조할머니 주꾸미집도 가고 싶고, 송도도 둘러보고 싶고 드라마 촬영지 가서 사진도 찍고 싶어요. 새삼 인천을 사랑하고 돌아보게 해 준 <굿모닝인천> 정말 고마워요.

\_ 박영순 서구 당하동

## 놀라운 송도, 빛나는 미래

'삼성, 인천과 미래를 맞잡다'는 비로서 송도를 국제도시로 첫 발걸음을 떼게 만드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삼성이 바이오산업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고, 머지않아 송도가 모든 도시가 부러워하는 바이오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믿습니다. 각종 연계 기관이 입주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인천에 놀라운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잘해서 더욱더 매력적인 송도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_ 한상대 부평구 십정동

## 이것이 바로 인천의 맛

'인천의 봄맛' 기사를 읽고 인천 곳곳의 파릇파릇 싱그러운 야채와 향기로운 허브 그리고 제철 만난 해산물을 맛보려 당당 달려갔어요. 음식을 맛본 후, '바로 이 맛이야' 하고 흡족했습니다. 앞으로도 <굿모닝인천>에서 인천의 좋은 곳, 좋은 먹을 거리를 많이 소개해주세요.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_ 배명순 남동구 간석2동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7호선 연장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공사구간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나아지질 않네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역 구간은 2012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2012년 8월까지 도로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bulloger 시장님 모스크바 대학이 인천 어느 지역에 유치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기사를 보면 청라라고 되어있는데요. 청라의 대기업 및 외자 유치와 대학 유치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러시아 출장 시 협의가 이루어진 대학은,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분교와 모스크바국립대 공동교육프로그램 센터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대학들과 일정기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수한 외국대학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bulloger 검암사거리 교통 어떻게 조치 안 될까요. 너무 밀려요. 버스타고 검암역까지 가려면 기본 20분은 걸려요. 게다가 도로에 주차한 압체들도 많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검암사거리 주변에서 검암역까지의 노선은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구간으로 도로폭이 좁아진 상태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상습 정체구간인 이 지역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서구청 주차단속 부서에 철저히 지시해 교통 소통이 원활도록 하겠습니다.



###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이명순 (당시 만 31세, 여)  
발생일자 2000년 8월 29일(화)  
발생장소 강화군 갑곶리  
신체특징 정신질환, 말이 어눌한 편  
제보처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예술품 경매행사를 연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 전달된다. 싱그러운 봄바람과 꿈결같은 벚꽃이 있어 눈부신 자유공원은 '홍예문예술축제'가 5월 28일 열린다. '기쁨과 즐거움이 두 배로, 흥희樂락'이 주제다. 즐거움을 배가시킬 길거리 전시회 및 사진전, 야외공연, 놀이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체험이 기다린다.

부평의 대표적인 축제인 '부평풍물축제'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흥겹게 펼쳐진다. '아시아 문화중심을 꿈꾸다'를 주제로 인천 부평풍물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축제, 인천부평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축제, 아시아문화소통의 중심, 세계적인 축제로 연다. 축제기간에는 제1회 아시아풍물심포지엄이 열려 아시아 각국 예술단체와 교류하고 풍물축제의 국제화 방안을 모색한다. <축제일정은 인포박스 55p 참조>

## ‘카네이션 사랑’ 축제로 꽃피다

카네이션처럼 송고한 사랑, 장미처럼 화려한 아름다움이 5월의 아이콘이다. 이 싱그러운 계절엔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다. 바깥으로 바깥으로 사람을 부르는 이 계절, 볼거리 풍성하고 즐길거리 많은 축제가 당신을 오라한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 패밀리축제’는 삶의 희망이자 동력인 ‘가족’의 의미를 일깨우는 행사다. 5월 7일 문학경기장 동문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화합, 소통, 실속, 균형을 테마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 등 소외되고 어려운 다양한 가족이 참여하고, 세대별 특성을 이해하며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해 서로 화합하는 소통의 한마당 잔치가 벌어진다. 가족장기자랑, 협동화 그리기 등 재미와 즐거움이 배가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오랜만에 한바탕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5월 5일은 어린이들의 꿈을 높이는 축제가 열린다. 에어로켓발사, 제기차기, 매직풍선 등의 체험활동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꿈꾸고 도전한다.

동구 화도진축제는 군영축제다. 병영기지였던 화도진을 배경으로 외세의 침략에 맞선 민족정신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한다. 선조들의 전통놀이 체험과 현대적 행사가 어우러져 펼쳐진다. 올해는 ‘나눔’에 포커스를 맞춰 지역예술가와 명사들이 기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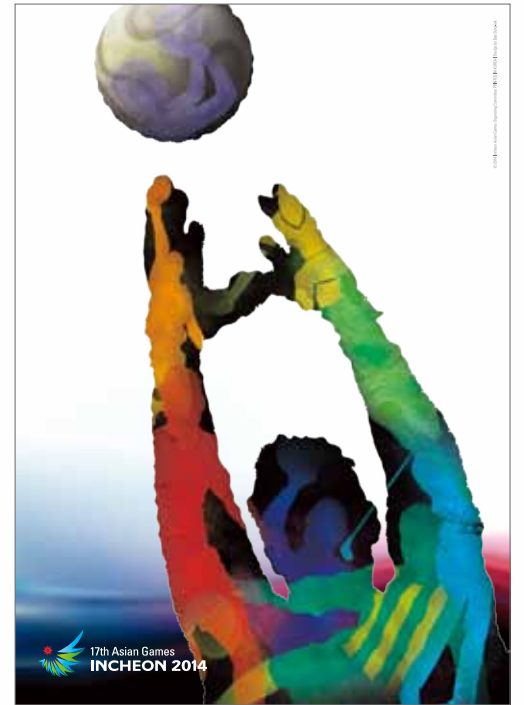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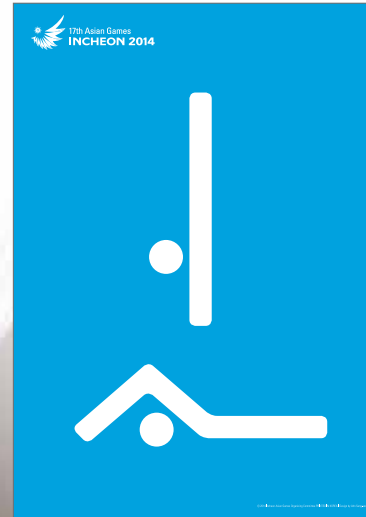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포스터 & 경기용 포스터

## 아세안의 화합과 평화 표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포스터는 활기찬 운동감과 리듬감을 살린 '달리는 스포츠맨'을 형상화했다. 인천대회 엠블럼과 연계해 여러 개의 그래픽 모티브를 조합, 스포츠를 통해 아시아인의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축제를 표현했다. 경기용 포스터는 올림픽 스포츠 28개 종목을 라켓, 구기, 수중, 기록, 투기 등 유사 종목을 묶어 5종으로 디자인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Diversity Shines Here*







I think I can,  
I know I can



## 아이야! 꿈 따라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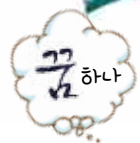
아버지로부터 카메라를 선물 받은 소년은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다. 평소 엉뚱하면 서도 궁금한 것은 꼭 해야 직성이 풀렸던 꼬마는 렌즈로 세상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커서 세계적인 영화감독이 됐다. 그는 바로 스티븐스필버그. 이처럼 어린 시절 보고 느끼는 경험 하나 하나는 아이의 미래를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 물론 당신의 아이도 제2의 스티븐스필버그가 될 수 있다! 인천에 펼쳐진 어린이 체험관에서 내일을 향한 꿈을 활짝 피우자. “아이들아~ 꿈 따라 가자. 너는 훌륭한 과학자도, 예술가도, 외교관도 될 수 있단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 어린이 체험관, 이렇게 관람하세요

- 1 체험관 가기 전, 정보 검색은 필수**  
체험관의 웹사이트를 미리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관람 계획을 세우고, 위치 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
- 2 안내 자료를 챙겨요**  
안내서를 참고해 건물 구조를 살펴 본 후 동선을 확인하면, 전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안내서는 나중에 아이가 기억을 더듬어 견학문을 쓸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 3 메모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체험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체험에 따른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아이의 답변을 적어두었다 나중에 대화의 소재로 활용한다. 또 아이에게 보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메모하도록 해도 좋다.
- 4 견학문을 써요**  
체험관을 다녀 온 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교육효과를 높인다.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학문을 쓰도록 하는 것도 좋다. 글을 쓰며 인상적이었던 전시물, 관람할 때의 재미있었던 일 등을 떠올리면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 견학문을 여럿 모아 자료집으로 만들어도 훌륭한 선물이 된다.





## 커서 과학자가 될래요

미래의 아인슈타인을 꿈꾸는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은 없을까? 고민할 것 없다. 인천 곳곳에 보석 같은 과학체험관이 있으니, 실컷 보고 느끼고 뛰놀게 하자. 미래의 과학자들을 위한 세상으로 출발~



### 과학을 넘어 감성을 깨워요

‘인천어린이과학관’의 모토는 ‘마음아 움직여! 動心兒’. 간혀있던 마음을 깨워 동심으로 키우고,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계양구 방축동에 이달 1일 전국 최초의 어린이과학관으로 문을 연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별천지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과학에 가까이 다가서고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조성했다.

1군 ‘무지개마을’은 모래, 나무 등 자연소재를 이용해 만든 입체체험 공간으로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2군 ‘인체마을’은 오감을 따라 몸속을 탐험하며 인체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궁금증을 풀 수 있다. 또 3군 ‘지구마을’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모습을 그리며 지구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이어 4군 ‘도시마을’은 도시, 바다, 우주가 어우러진 4차원적인 미래도시상을 눈앞에 펼치고, 5군 ‘비밀마을’은 소방관, 요리사, 선생님 등 어른이 된 미래의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100석 규모의 최신식 4D영상관이다. 과학관 캐릭터 하니와 모니가 꿈을 찾아 대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물이 튀고, 바람이 불고, 의자가 들썩일 때마다 까르르 웃음이 터져 나온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쉼다. 또 3세부터 입장할 수 있고 입장료는 7세 이상 어린이 2천원, 성인 4천원, 인천시민은 50% 감면된다. 개관일인 1일부터 6일까지는 무료로 개방한다. 인천어린이과학관 550-3300

### 그곳에 디노사우르스가 있다!

인천문학경기장 안에 있는 ‘인천어린이박물관’에도 신나는 과학세상이 펼쳐 있다. 이곳은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중심의 박물관으로 과학탐구, 공룡탐험, 지구촌 문화탐구 등 다양한 주제로 전시가 열린다. 과학탐구장에는 날아가는 편지, 발로치는 피아노, 그림자놀이 등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 놀이 형태의 전시물들이 있다. 직접 만지고 작동하고 놀면서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아이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또 공룡탐험장에 가면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약 2억4천500만년 전 중생대로 거슬러 올라 공룡들을 만날 수 있다. 재미나게 놀면서 지구와 생물의 역사와 진화에 대해 깨닫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체험활동도 다채롭게 열린다. 주중에는 공예품에 고운 빗깔을 입히고 손수 오리고 붙이며 솜씨를 뽐내고, 토요일에는 데칼코마니, 핑거페인팅 등 미술체험을 할 수 있다. 이어 일요일에는 초코아트, 클레이 등 공예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체험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쉼다. 입장료는 12개월 이상 어린이 6천원, 중학생 이상 일반은 5천원이다.

인천어린이박물관 432-5600



### 과학나들이, 하루가 모자라요

인천에는 연구원과 발전소 등에서 시민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보석 같은 과학체험관이 많다. 영흥면 바닷길에 줄지어 서 있는 송전탑과 높다란 굴뚝을 따라가다 보면 영흥화력발전소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에너지파크’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주민에게 에너지사업을 이해시키고 함께 호흡하고자 만들었다. 체험관인 E-오디세이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에너지의 생산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 건물 밖 전망대에 오르면 발전소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에너지를 테마로 공원이 잘 가꿔져 있어 온가족이 함께 나들이하기 좋다.

영종도 교육과학연구원 안에 있는 ‘인천학생과학관’도 새싹들의 꿈을 무럭무럭 키운다. 전시관은 과학놀이기가 있는 꿈돌이관, 다양한 광물과 암석, 동식물의 생태를 엿볼 수 있는 자연사탐구관, 기초과학탐구관, 미래과학관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과학체험관에는 돔 스크린을 설치한 천체투영실이 있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에 빠져 들게 한다.

송도 앞바다 인공섬에 있는 ‘가스과학관’도 과학체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우주기지의 모습을 한 과학관에는 27종의 다양한 전시영상물이 있고, 그 앞에 위대한 과학자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과학광장이 있다. 또 가스불꽃을 형상으로 한 크린타워는 체험동산과 놀이공간으로 꾸며져 있어 아이들의 오감을 활짝 깨운다.

에너지파크 070-8898-3570 / 인천학생과학관 880-0792 / 가스과학관 822-4492





## 커서 예술가가 될래요



같은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그림을 보아도 이해하는 깊이가 남다른 아이. 우리아이에게서 예술가적 기질이 엿보인다면 혹은 감수성을 키우고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고 싶다면, 문화예술을 가까이하게 하자.



### 100년 창고에서 예술과 만나요

‘인천아트플랫폼’은 100여 년 된 창고와 공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으로 TV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해 아이들에게도 친숙하다. 플랫폼 A단지에는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작업실과 공방이 있으며, B단지에는 전시·공연·교육 시설이 있다. 작은 무대와 전시실에서 시민을 위한 무대를 열고 바로 옆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달 아트플랫폼에서는 29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프리뷰전시 ‘2011 인천상륙작전’을 연다. A동 크리스탈 큐브에서는 ‘버려진 개’에 대한 단상을 적은 화폭과 개 1,025 마리의 조각을 전시한 윤석남 작가의 〈1,025〉를 선보인다. 유기견에게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 아이들에게 세상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아트플랫폼이 자리한 이곳은 인천예술문화의 자양분이 깊게 스며 있어, 아이들에게 살아 있는 역사를 피부로 느끼게 한다. 뒷길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 대불호텔이 있고 그 뒤로 차이나타운과 근대문화 역사의 거리가 펼쳐진다. 예술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시간여행이 아이들의 가슴에 잊지 못할 추억을 아로새길 것이다. 아트플랫폼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은 쉰다. 특정교육프로그램과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다. 인천아트플랫폼 760-1000



### 예술로 물드는 동심

인천대공원 인근 상아산 기슭에 그림처럼 내려앉은 ‘애보박물관’은 ‘愛寶, 아이를 사랑하고 보물을 사랑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박물관은 이름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활동으로 아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준다.

애보관에 가면 세계 20여 나라 아이들과 우리나라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린 민화작품을 볼 수 있다. 소박하지만 그 나라의 색채가 흠뻑 배어 있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미술적인 표현을 접할 수 있다. 또 음악에 맞춰 춤추는 로봇을 비롯해 모양도 종류도 다양한 로봇을 전시해 동심을 들뜨게 한다. 이곳에서는 또 선조의 숨결이 깃든 전통공예품을 감상하며 옛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다. 2층 기획전시관에서는 전통 누각이 그려진 조선시대 해주 향아리와 목가구를 전시하고, 다리 건너 구암관으로 가면 시대와 종류를 넘나드는 유물이 가득하다. 고려시대 청동공예품을 비롯해 조선시대 백자, 석공예품, 목공예품 등 유물 하나하나에 세월을 입은 맛이 흐른다. 전통공예 문화를 접한 후에는 손수 공예품을 만들며 예술적 감각을 키워본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도자공예를 비롯해 목공예, 민화, 한지공예, 판화공예 등 다양한 공예체험을 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료는 24개월 이상 어린이 2천500원, 성인은 3천500원이다. 체험프로그램 활동비는 별도다.

애보박물관 466-3181, 2

### 고미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푸르게 물결치는 서해바다를 곁에 두고 시원하게 뿜린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미술관이 나온다. ‘송암미술관’은 지난 1992년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창업자인 고(故) 송암 이회림 명예회장이 평생을 수집한 고미술품 8천400여 점을 모아 세웠다. 그리고 지난 2005년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우리시에 기증했다. 시는 이 같은 뜻을 기리고 시민에게 더 나은 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미술관의 개보수 작업에 들어가, 지난달 25일 다시 열었다. 새롭게 단장한 미술관의 1층 전시실은 청동기실, 도자기실, 불교미술실, 민속실로 꾸며졌다. 청동기시대 토기부터 고려시대 청자, 조선시대 백자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변천사를 통해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본다. 또한 불상, 불화, 불기 등 불교미술품과 은장도, 경대, 촛대 등 조선시대 공예품을 보며 한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느낀다. 2층 전시실에서는 선인이 혼을 담아 쓰고 그린 서예작품과 회화작품, 인장을 전시한다. 강건하고 맑은 기운이 감도는 대가들의 작품이 마음에 강렬한 느낌표를 찍는다. 한편 개관기념 특별전인 ‘우리 미술 속 송암(松巖) 이야기’가 개관 다음날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아이들에게 소나무(松)와 바위(巖)처럼 의연하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라는 가르침을 준다.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쉰다. 관람료는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일반은 400원이다. 송암미술관 440-6770







## 커서 외교관이 될래요

꿈을 펼치기에 우리나라는 너무 좋다! 21세기 국제도시 인천에 사는 어린이들은 꿈도 남다르다. 아이들이 더 큰 세상을 열어가도록 넓은 안목을 키워 줄 외국어 체험공간을 소개한다.



### Dream Big in English!

영어공부는 학습이 아닌 습득인 만큼 생활 속에서 직접 부딪치는 것이 가장 좋다.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영어를 배울 기회는 많다. ‘인천영어마을’에 가면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시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인천영어마을’은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은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영어체험학습 공간이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닌 생활체험 중심의 실용적인 학습으로 아이들의 영어능력을 쑥쑥 키우고 있다. 마을에 들어서니 외국에 온 듯한 착각이 든다. 공항, 은행, 병원 등 체험시설을 실제처럼 조성했고 원어민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곳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박5일의 영어캠프가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직업체험, 생활체험, 문화체험,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어의 재미를 느끼고 언어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직업체험은 건축가, 미술가, 스타일리스트 등 12가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미래의 꿈을 앞당길 수 있어 아이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캠프에 참가하기를 원하면 학교에서 배부하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교육비는 38만원이며 이 가운데 시가 26만원을 지원해 1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 학생은 무료다.

인천영어마을 560-8114

### ‘니하오 차이나!’ 버스타고 중국으로

“니하오(안녕하세요)~ 짜이지엔(다시 만나요)~ 씨에씨에(감사합니다)~”

중구 차이나타운, 아이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예쁜 목소리로 중국어를 따라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세계무대에 떠오르면서 중국어유치원이 생길 정도로 중국어 바람이 불고 있다. 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을 찾는 아이들도 계속 늘고 있다.

차이나타운은 1884년 청나라 조계지를 형성하면서 중국인들이 살아 온, 그들의 삶과 풍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동네다. 중구는 이곳에 지난해 3월부터 중국어 마을 어린이 체험교실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 중문화관, 중국어마을문화체험관을 비롯해 차이나타운을 둘러보고 중국 전통의 상 치파오를 입고, 월병을 만드는 등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다.

“버스타고 중국에 왔어요. 마을이 정말 신기해요. 중국어 발음도 특이하고 재미 있어요.” 멀리 용인에서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봄나들이를 온 유치원생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마냥 즐겁다. 예쁜 중국옷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신기한 중국동네도 구경하고 점심에 맛난 자장면도 먹었으니, 기분이 최고다.

어린이 체험교실은 4월에서 11월까지 매주 3회 화·수·목 수도권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체험료는 1인당 1만원이다. 또 토요일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체험료는 1인당 5천원이다. 중국어마을 760-7114



### 우리아이를 위한 맞춤형 영어교육

2005년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서구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그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서구영어마을’도 그 일환이다.

인천서구영어마을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영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영어마을은 의사소통 위주의 실생활 영어를 다양한 영어권 문화와 함께 체험토록 하고 있다. 또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를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있다.

7세 미취학 아동은 주 2회 하루 40분 수업하며, 수강료는 서구 관내 학생 기준 1학기에 24만원이다. 또 초등학교생은 3개월 1학기 기준 주 2회 하루 45분 수업하며, 수강료는 미취학 아동과 동일하다. 영어마을은 이와 함께 정규반의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스타플러스 과정을 운영한다. 인텐시브 읽기, 말하기, 쓰기 과정이 있으며 학생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또 금요일에는 5~7세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부 단체를 대상으로 일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강료는 1인당 1만5천원이다. 프로그램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녹청자도요지, 선사박물관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더욱 좋다. 인천서구영어마을 560-1000



## ‘효’ 면면히 살아 움직이다

인천은 효의 향기가 면면히 흐르는 고장이다. 도시이름이 의미하듯 인(仁)이 강물처럼(川)흐른다. 효는 인의 실천이기에 인천은 예나 지금이나 효행이 뿌리깊이 잘 살아 있다. 유명한 효녀 심청이부터 조선후기 효의 표상인 김정후 이야기까지 효자, 효부의 전설과 실화가 줄줄이 전해진다. 인천은 사람이 살아가고 해야 할 도리인 효행사상을 이미 대대로 체화시키며 행실의 근본으로 삼아왔다. 인천사람들이 경우 바르고, 깃듯한 예절은 면면히 흐르는 효에서 나왔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하장원 시 대변인실, 홍승훈 자유사진가



심청각(웅진군 백령면)

효녀 심청像

孝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에서 장차 인류문명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효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문화다.

인천에서 효를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은 성산효대학원대학교다. 이 학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효를 현대적 학문으로 승화시키고, 이론화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 국민이 효행운동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만들었다. 이 법을 근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군 등에서 효행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성산효대학원대학교는 ‘효’를 학문의 최고 경지에 올렸다. 효에 관한 학문으로 ‘효학박사’ 학위를 수여, 효박사를 배출했다. 현재 효학박사 학위 취득자는 17명이 있다. 효를 공자의 고리타분한 사상이 아닌, 실천하면 즐겁고 행복한 세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도 큰 공로다. 유치원, 초중고교, 평생교육기관, 보육시설에도 효행사상을 전파,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효의 가치를 알리는 산파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 시내 100여 개교에 효행봉사단을 조직해 학생들의 효행활동을 장려한다. 교수들이 수시로 일선학교에 나가 효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 호응을 이끌고 있다.

효성과 인성교육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효(孝) 지도사’도 양성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700~800명이 활동하고 있다. 효지도사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를 현대적 효 개념으로 발전시켜 이론적 기초와 행동예절을 가르치고, 지도할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다. 이들은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에 맞는 효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현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효 개념을 교육시킨다.

효도(孝都) 인천은 효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효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고 있다. 인천효박람회는 우리시와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주최가 되어 급속도로 고령화되어가는 우리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 효 이야기의 대표적인 심청전 마당놀이, 멋쟁이 실버패션쇼, 노인들의 예술댄스 경연대회, 노인들의 손인형극 공연, 청소년들의 효노래 경연대회, 효송페스티벌 등 흥겨운 잔치마당으로 꾸며 효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효를 실천하는 청소년과 시민을 발굴, 시상한다. 성산효행상과 심청효행대상이 매년 전국의 효녀들에게 상을 주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다. 심청효행대상은 가천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지난 1999년 고전소설 ‘효녀심청전’의 배경이 되고 있는 웅진군 백령면에 ‘심청각’ 건립이 계기가 되어 상이 만들어졌다.



이철·이율형제 정려



인천효박람회에서 아이들이 포스터를 관람하고 있다.



1999년 제1회부터 12회까지 심청효행대상을 수상한 효녀·효부는 모두 95명. 수상자들은 효행이 수차례 회자되고 또 미디어를 통해 널리 전파되면서 각박한 세상을 개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순복음교회는 ‘효피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효가 살면 가정의 화목하고,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청소년 효행봉사단, 효피플자원봉사단 캠프를 운영하고,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설날 세배드리기, 길거리 청소, 헌혈 운동 등 지역을 위한 사랑봉사 활동으로 효행을 실천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웃어른에게 존경의 식과 효도가 학교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효행선도학교 1백곳을 선정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5백만원씩 지원, 효행 교육을 독려하고 있다.

효행선도학교에서는 관련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에 효 수업이 진행되고, 가족 효행봉사단 운영, 인근 노인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노인공경 활동을 배우고 어르신과 대화하기 등의 효행특별 활동을 전개한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제작한 ‘효 동영상’을 공모하고, ‘경로효친상제’를 제정해 효행 실천의지가 투철한 학생, 교직원, 가정을 발굴해 교육감상을 시상한다.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콘텐츠인 효. 인천은 효를 가장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도시임에 틀림없다.



구월중학교 인사말

“저는 효자입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자리 잡은 구월중학교(교장 정복락)는 효 교육에 관한 으뜸을 자랑한다. 선생님에게 인사할때나 친구들과 만날때, 외부 행사를 할 때도 ‘저는 효자입니다’를 외친다.

이 학교의 효 교육은 학교특색사업으로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어른들에 대한 효행교육을 옛날 케케묵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효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인간에 대한 도리, 배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으로 효를 가르치고 승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효행노트를 기록, 충실하게 효행을 실천한 학생에게 효자임을 인증하는 배지를 달아준다. 전체 학생의 50%가 이 배지를 달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물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다.

봄날, 그대를

합독(合獨)

사랑합니다

우리는 최근 옛 성인의 효행정신을 실천하는 행사를 벌여 어르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3월 30일 인천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남녀 어르신 만남 행사인 ‘합독(合獨)’제다.

합독은 조선시대 대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 ‘애민(愛民)’편 진궁조에서 다산은 “홀아비와 과부, 고아 그리고 늙어 자식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이들은 궁핍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설 수 있다. 합독(合獨)을 주선하는 정책 또한 실행할 만 한 것이다”라고 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합독사업엔 남녀 어르신 각각 50명씩 100명이 참여했다. 모두 60세 이상의 홀로되신 어르신들이다. 이 행사를 위해 어르신들은 그 어느때보다 한껏 멋을 부렸다. 화창한 봄날에 어울리는 화사한 화장과 머리도 예쁘게 매만졌다. 남자 어르신들도 양복에 행커치프를 꽂아 포인트를 줬고 모자를 써 중후한 노인사의 면모를 보였다.

어르신들은 한껏 들뜬 모습이었다. 젊은이들의 단체 미팅 못지 않게 열기도 후끈했다. 이성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은 나이와 상관없이 보였다. 축하공연에 나선 가수 현숙이 ‘사랑하고 싶어요’를 열창하자 행사에 참석한 60세 이상 남녀노인 100명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어색함을 뒤로하고 정답게 귓속말을 나누는 남녀 노인도 눈에 띄었다.

커플에 성공한 성명옥 할머니(69)는 “커플로 맺어진 할아버지와 3번 정도 만나 식사를 같이 했다”고 말하고 “할아버지가 점잖고, 정리도 잘하고 깨끗하셔서 마음에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독사업 만남의 날 행사에는 모두 26쌍이 커플로 매칭됐다. 시는 커플이 된 어르신들에게 최근 노인들의 사랑이야기로 가슴을 적시고 있는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합동관람을 주선했고, 어르신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인 ‘카페’를 개설해 제공할 예정이다. 합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녀들과의 갈등 및 재산상의 분배 등에 대한 법률상담도 열어,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돕게 된다.

시는 이번 합독사업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오는 10월 중에 다시 한번 행사를 열어,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생의 기쁨을 제공할 것이다.





## 범상치 않은 가족의 독서 노하우

컴퓨터게임이나 바깥놀이에 빠져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도서관을 제집 드나들 듯하며 책을 양손 가득 담아 오는 아이들, 책 읽는 가족의 모습이다. 우리시 관내 도서관에서는 매년 대출권수가 가장 많은 가족을 대상으로 '책읽는 가족'을 선정하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인천시교육청 중앙도서관에서는 2010년 12월 책읽는 가족으로 최선용씨(남동구 구월동) 가족을 뽑았다. 최씨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인 남자아이를 두고 있다. 이 가족은 작년 한 해 이 도서관에서만 6백 19권을 읽었다.

이 가족의 독서이력은 대출권수와 도서관 출입에서 나타난다. 매주 2~3일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엄마와 아이들이 한주에 15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하루에 1~2시간은 꼭 독서에 할애해 아이들은 영어, 문학, 과학, 경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두루 섭렵한다. 어머니 최씨는 아이들의 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얹혀 놓고 아침, 저녁으로 책을 많이 읽어준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한다.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 말고도 집에 1천5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책을 사랑하는 가족이다. 독서 때문인지 아이들은 특별한 사교육 없이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수학 영재반에 발탁돼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

어머니 최씨는 구월동 롯데캐슬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그루터기'에서 책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책의 세상과 더 친근하게 만들고 있다.

김영미씨 가족도 뒤지지 않는 독서가족이다. 9살, 5살 자녀를 두고 있는 김씨의 일과는 큰 배낭을 메고 수봉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일이다. 수봉도서관에서 7권, 학교에서 3권이다. 모두 10권의 책은 초등학교



교 2학년인 아들이 하루에 책을 읽는 양이다.

김씨는 아이들의 독서교육을 위해 집안의 TV를 없애고,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책을 장난감처럼 친구처럼 만지고 놀 수 있도록 숨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씨는 아이를 예체능 학원을 제외한

다른 학원은 일체 보내지 않는다. 집에 와서도 일단 책을 읽는 것이 제일 먼저다. 큰아이가 책을 잘 읽으니까 다섯 살짜리 딸도 책을 가져와 자연스럽게 읽어달라고 조른다.

김씨는 아이가 책을 잘 읽어서인지 어휘력도 좋고, 시험을 보면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주관식 문제를 잘 쓰고, 표현이 구체적인 것 같다고 말한다.

주안 5동에 사는 김정남씨는 바쁜 남성 직장인치고 꽤 책을 읽는 편이다. 하루에 2~3시간은 책을 보는데 할애한다.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일찍 일어날 정도로 활자에 열중한다. 일주일에 5~7권을 읽는다. 김씨는 책을 읽기 위해 아예 텔레비전을 없앴다. 분야도 경제, 처세, 베스트셀러 등 다양하다.

김씨는 최근 읽은 책 중 박완서의 '세 가지 소원'이 가장 인상깊다.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진심과 혼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에 큰 울림을 받았다. 김씨는 "책을 통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알 수 있고, 남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며 책읽기의 중요성을 말한다.

## 이달의 서평



### 리딩으로 리드하라

줄리언 바지니 | 이지성 | 문학동네 | 2010

카네기, 워런 버핏, 이병철, 정주영이 황금 손이 될 수 있었던 밑바탕은 무엇일까? 알렉산더, 세종과 정조 등 희대의 국가 경영자들의 공통점은? <꿈꾸는 다락방>의 이지성은 그 비밀이 모두 인문고전 독서에 있다고 말하며, '인문고전 읽기'를 통해 미래를 바꾸는 힘을 제시한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차별화된 시각과 명쾌한 논리로 수천 년간 강대국과 지배계급만이 이어 온 성공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



### 티타티타

김서령 | 현대문학 | 2010

옛 풍경이 되어버린 도시 서민층의 삶을 세밀한 묘사력과 서정적 문체로 복원한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로 2007 동인문학상 최종심 후보에 오르며 화제를 낳은 신예 김서령 작가의 첫 장편소설.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인 소연과 미유가 주인공이다. 작가는 겉보기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두 여자가 그녀들 주변의 그다지 특별한 것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소소한 쓰라림과 상처들을, 섬세한 심리묘사와 매혹적인 문체로 그려내고 있다.



### 파리는 깊다

고형욱 | 사월의책 | 2010

많은 여행자들이 꿈꾸는 파리를 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미술, 영화, 책, 음식 등에 관심이 많은 컬처홀릭이 파리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즐겨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먼저 현대미술이 탄생한 20세기 초반 파리를 조명하고 오르세와 오랑주리, 로댕과 모로미술관을 중심으로 관람 포인트를 짚어본다. 분주한 관광 대신, 파리라는 도시를 산뜻하게 즐기는 법을 알려준다.



### 서른살엔 미처 몰랐던 것들

김선경 | 걷는나무 | 2010

치열하게 20대를 살았지만 아직도 치열한 30대. 저자인 김선경은 마흔 개의 통찰을 통해 외롭고 힘든 서른에게 위로를 건넨다. 인정받고 싶지만 맘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 풀이 꺾이고,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지쳐있는 30대에 자신이 원하는 일과 재능을 찾아 치열하게 덤벼보라고 조언한다. 최고의 편집자에서 실패한 출판사 사장까지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며 찾아낸 김선경의 조언은 소심하고 서툰 청춘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 주제별 추천도서

서명	지은이	출판사	추천기관	책 소개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지성	문학동네	한국출판인회의	세상을 지배하는 0.1퍼센트의 독서법
서른살엔 미처 몰랐던 것들	김선경	걷는나무	한국출판인회의	마흔이 되기 전에 알아둬야 할 마흔 가지 힌트
씨알사상	박재순	나눔	문화체육관광부	씨알정신과 사상을 운동으로 실천
도쿄대 스토리	도쿄대학교 학생회	사람과책	문화체육관광부	도쿄대 한국인 학생 17인의 유학 일기
세계와 나 W2	MBC W제작팀	삼성출판사	대한출판문화협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 W의 이야기
이론 이후	테리 이글턴	길	인디고서원 출판부	결국 이론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든 개는 다르다	김소희	페티앙북스	한국윤리간행물위원회	시간 속에 숨은 51가지 개 이야기
그림, 문학에 취하다	고연희	아트북스	한국윤리간행물위원회	그림이 된 문학, 문학이 된 그림
책만 보는 바보	안소영	보림	한국윤리간행물위원회	이덕무와 인물들, 더 나아가 그 시대를 담음
티타티타	김서령	현대문학	문화체육관광부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될지 예감할 수 없었다
조선왕을 말하다	이덕일	역사의아침	한국출판인회의	치세에 성공과, 실패의 왕들
파리는 깊다	고형욱	사월의책	한국출판인회의	한 컬처홀릭의 파리 문화예술 발굴기

자료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맑은 영혼을 간직한 순수의 땅

# Tibet 라싸



모든 티베트인들이 평생에 걸쳐 꿈꾼다는 티베트의 주도(州都) 라싸로의 여행. 티베트인들에게 라싸는 수도(首都)가 아니라 평생의 염원을 실현하는 순례길의 정점이다. 불·법·승 삼보(三寶)에게 올리는 큰절을 의미하는 오체투지를 통해 티베트인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에 걸쳐 라싸로 향한다.

글·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티베트인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라싸로 향하는 숭고한 순례 길을, 나는 중국 서안(西安)에서 라싸까지 1시간 남짓 비행기를 통해 날아갔다. 티베트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 없는 나에게 티베트는 고산병을 안겨 주었다. 해발 3천6백58m(라싸의 고도) 이상되는 고지대에 적응기간 없이 단숨에 올라섰으니 어찌면 당연한 결과다. 두통과 몸살기를 동반한 고산병이 3일이 넘도록 심각한 병세가 되어 나를 괴롭혔다. 고행과 같은 고통을 겪고 난 후에야 티베트는 자신의 품에 이방인을 안아 주었다.







**세계의 지붕 티베트** 평균고도가 4천m가 넘는 티베트는 세계의 지붕으로 불릴 만큼 고도가 높다. 히말라야 산맥의 북쪽과 중국의 서쪽에 해당하는 넓은 고산지대에 걸쳐 있는 티베트는 1950년 10월 7일, 티베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진군한 중국 인민해방군 3만명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었다. 당시 티베트인 120만명이 사망하고, 사원 6천254개가 파괴됐다.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라마 14세는 인도의 북쪽 다람살라로 탈출하여 망명정부를 세우고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티베트를 여행하면서 나는 마치 오래된 우리 과거를 들춰보는 기분이었다. 중국정부의 이주정책으로 라싸는 중국색이 완연해졌지만, 그 중심부를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네 60년대를 연상시키는 시골을 만난다. 친밀감과 함께 마음 한쪽이 저미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언제 찢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동네 꼬마들은 꾀죄죄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에서 말할 수 없는 온기를 느꼈다. 수줍지만 이방인에게 살포시 건네는 티베트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 경전이 들어있는 경통을 열심히 돌리는 사원에서 만난 티베트인들, 어느 순간 그들은 커다란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고 있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젖어 있는 소위 문명인이 오히려 안타깝게 느껴진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바다와 같은 스승, 달라이라마의 왕궁 포탈라** 라싸를 대표하는 곳은 포탈라궁이다. 달라이라마의 여름궁전인 노블링카와 조강사원도 빼놓을 수 없다. 포탈라궁은 하루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으며, 하루 관광객 수도 그만큼 제한되어 있다.

포탈라궁은 토번국의 왕이었던 '송첸캄포'가 라싸를 주도로 삼은 후, 라싸의 붉은 산에 올라가 경전을 외우고 기도했던 곳이다. 보살이 살던 곳의 의미인 '보탈라'로 불리다 오늘날 '포탈라'가 되었다. 서기 614년, 당나라 문성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한 송첸캄포는 공주를 위해 천개의 방이 있는 포탈라궁을 세웠다.

조강사원은 송첸캄포가 인도의 브리कु티 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때, 그녀의 반지가 빠진 호수에 사원을 짓겠다고 약속한 후, 호수를 메워 사원을 지은 데에서 유래한다. 조강사원이 유명한 것은 사원의 아름다움과 함께 라싸 최고의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 라싸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인 '빠지아오에 거리'와 붙어있어 그 명성이 더해졌다. 오체투지를 통해 성지순례를 온 티베트인들은 조강사원을 중심으로, 성스러운 길로 불리는 사원주변을 끊임없이 돌며 불심을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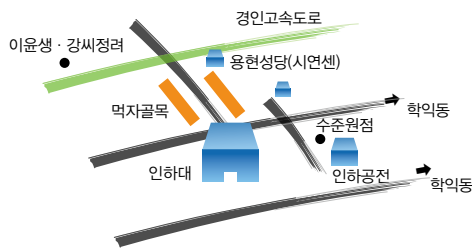
나도 그들을 따라 몇 걸음 흥내 내 보았다. 등에 메고 있는 짐이 무거워서일까, 손에 들려져 있는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일까. 이방인의 어설픈 비틀거림에 티베트인들이 묘한 의미를 담아 미소를 전해 주었다.



## 늙음과 젊음 그 자유를 허<sub>許</sub>하는 용현벌

10년 전, 2001년에 환경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서울, 인천, 수원 등 10개 지역 주민 1천2명을 대상으로 주거지역 생활 만족도를 조사했다. 결과는 1위 서울 압구정동, 2위는 수원 화서동이었다. 이어 인천 용현동이 3위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77.0% 가 '만족'을 표시했다. 60년 전 고향을 뒤로 한 피난민들은 '자유'를 찾아 동지 튼 것에 만족하고 전국 각지에서 물려온 대학생들은 캠퍼스의 '자유'를 만끽하며 그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용현동은 예전에 비랑이 혹은 비랭이라고 불렸다. '비랑'이란 '파도(浪)가 난다(飛)'는 뜻으로 쓰였다고 전해지긴 하나 '비탈진 곳'이라는 해석이 더 우세하다. 용현동의 대표적인 비탈길은 흔히 얘기하는 '독쟁이' 고개다. 독쟁이는 발음 편의상 독정리에서 파생한 명칭이다. 독정(讀亭)은 책을 읽는 정자라는 뜻이다. 이곳은 배산임수의 땅 모양이다. 수봉산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승기천 개천이 흐르며 멀리 인천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양지 바른 기슭이었다. 책 읽기에 알맞은 정자가 들어서기에 딱 좋은 곳이다. 훗날 인하대학교가 이곳에 터를 잡게 된 운명은 이미 타고 난 듯 하다.



① 대한민국 지형 높이의 기준점이 되는 수준원점(水準原點)  
② 인경호의 볼 ③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져있던 석대

### 미나리밭의 상아탑

용현벌은 온통 미나리밭과 배추밭이었다. 6.25 동란 이후에는 잠시 피난민수용소로 사용되었다. 그 벌판에 상아탑이 세워졌다. 인하대학교는 1954년 4월 24일 仁川(인천)과 荷蛙伊(하와이)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이름으로 개교했다. 하와이 교포 2세 교육을 위하여 이승만 박사가 설립해서 운영했던 한인기독교학원을 처분한 대금과 하와이 교포들의 성금이 기초가 되었다. 인천시는 용현벌판을 대학 교지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기증했다.

대학 설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하야할 때까지 매년 입학식과 졸업식에 참석할 정도로 인하대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다. 1979년 2월 이 전 대통령 동상이 하와이 한인동지회에서 보낸 성금 5만 달러로 인경호 부근에 3.4m 높이로 세워졌다. 화강암 석대의 추념문에는 '하와이 이민의 한 많은 눈물을 받아 본교 창립에 크게 이바지한 초대 대통령'이라고 쓰였다. 그러나 동상은 학원 민주화 바람을 비껴가지 못했다. 1983년 10월 학생들에 의해 동상은 밧줄에 묶여 땅으로 내동댕이쳐졌다. 동상은 현재 학교 측에서 원형대로 복원해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동상 없는 석대만 30년 가까이 인경호를 쓸쓸히 바라보고 있다. 인하공전 7호관 뒤에는 중요한 국가시설이자 문화재가 자리 잡고 있다. 언뜻 보면 침성대처럼 보이는 3m46cm 붉은 벽돌의 원통형 건축물은 '수준원점(水準原點)'이다. 이 수준원점은 대한민국 지형 높이의 기준점이 된다. 바다로부터의 높이를 말하는 해발의 기준점이 바로 이 수준원점이다. 원래는 당시 바닷가였던 중구 향동1가 2에 설치했다. 하지만 바다매립이 계속되자 이 수준원점을 더 이상 바다 옆에 두기 어렵게 되었고 육지 안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때 이전 대상지로 떠오른 곳이 인하공전 캠퍼스였다. 지반이 평탄하고 단단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수준원점은 1963년 12월 향동 바닷가에서 인하공전으로 옮겨졌다.

비록 국립지리원의 관리 대상물이지만 학생들은 국내 유일의 수준원점이 학교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인하공전은 학교에서 송도유원지까지 왕복하는 원점 마라톤대회는 물론 원점체육대회, 원점축제 등 '원점' 돌림자의 행사를 매년 치른다.





④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원, 해성보육원 ⑤ 개업한지 40년 가까이 된 당구장  
⑥ 재개발이 머지않은 듯한 용현4구역

###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원

먹자골목에서 남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용현4동 성당이 나온다. 그 성당 지하에 흔히 ‘시연센’이라고 부른 시민 교육연극센터가 있다. 2004년 성당과 남구청 그리고 전 시립극단 예술감독 박은희씨가 힘을 합쳐 지하 74평 공간에 15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춘 연극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근근이 꾸려왔는데 시연센은 결국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비 부족으로 두 달 전에 문을 닫았다.

인하대와 같은 울타리에 있는 정석항공고 뒷문 건너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원인 해성보육원이 있다. 이 보육원은 우리나라 개화기 역사의 한 페이지를 품고 있다. 프랑스 샤르트르 성바로 수녀회는 1894년 가을 길 거리에 버려진 4살과 12살 된 여자아이와 이듬해 4월 2살 된 남자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답동성당 내에 해성보육원을 설립했다. 광복 이후 고아의 수가 급격히 늘자 보육원은 1948년 현재의 자리에 용현동 분원을 설치했다. 6·25전쟁 때 신부와 수녀들은 20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송도와 덕적도 등으로 피란을 다녀야만 했다. 전쟁이 끝난 뒤 보육원을 재정비하고 1975년에 아예 보육원 자체를 용현동 분원으로 이전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 당구 필수학점 300

인하대생들은 주로 뒷문으로 다닌다. 정문 쪽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상권이 발달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뒷문 건너편이 대학가가 되었다. 먹자골목은 남북축과 동서축이 교차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얼마 전 이 골목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되었다. 동서축은 100년 전 경인 철로를 형상화해 옛 역사의 연혁 등을 주물동판으로 표현했고 남북축은 우리나라 해발고도의 기준이 되는 수준원점을 이미지화해 국내외 대표적인 해발고도를 주물동판으로 설치했다.

7,80년대 인하대 후문의 명소는 당구장이었다. ‘당구학점 300은 돼야 졸업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하대생의 평균 당구실력은 만만치 않았다. 그만큼 당구장도 많았다. 그 덕분에 이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 당구선수가 배출되었다. 2004년과 2006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김가영 선수다. 김가영은 아버지 김용기씨가 이곳에서 당구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연스럽게 큐대를 잡았다. 어린 딸을 위해 아버지는 큐대를 키에 맞춰 잘라 주었고, 김가영은 대학생 오빠들 틈에서 당구공과 씨름했다. 15년 후 그녀는 포켓볼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 의병과 열녀

용현동 골목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념물이 있다. 지금은 빈터로 남아있는 유리(유류)부대 뒤편에 시·도기념물 제4호인 이운생·강씨정려(李允生姜氏旌閭)가 있다. 정려는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기리기 위해 동네에 세운 건축물이다. 1604년 용현동에서 태어난 이운생은 1636년(인조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인근의 낙섬으로 들어가 강화도에서 남한산성으로 통하는 길목을 차단하면서 청나라 군사를 무찔렀다. 다시 청나라 대군이 침입하자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결국 패하고 의병들과 함께 전사하였다. 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부인 강씨도 곧 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후에 철종은 정려를 내리고 그를 좌승지에 강씨를 숙부인으로 봉했다.

얼마 전 용현동 일대에서 영화 한 편을 촬영했다. 인생 끝에 찾아온 아름다운 사랑을 깊은 시선으로 담아 낸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는 용현동의 풍광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화담당자는 용현동 일대를 둘러보고 로케이션 장소로 바로 오케이었다. 김만석(이순재)의 손녀인 연아(송지효)의 직장인 용현3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비룡센터, 용현시장 등이 필름 속으로 들어갔다.

6·25 전쟁 후 독쟁이 골목과 수봉산 기슭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영화 속의 노인들처럼 지나온 시간에 순응하며 동네와 함께 그렇게 늙어 갔다. 비탈진 골목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들의 주름처럼 깊게 패어 갔다.



이운생·강씨정려(李允生姜氏旌閭)











## ‘신의 물방울’로 마음을 흠치다

소믈리에 조학영

검은 수트를 입은 소믈리에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잔에 와인을 따른다. 투명한 잔 안에 물결치며 내려앉는 ‘신의 물방울’. 우아한 보랏빛 물결이 시선을 빼앗고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풍부한 향이 후각을 유혹한다. 그리고... 벨벳 같은 부드러움이 혀끝을 감돌아 입안으로 퍼져나간다.

와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술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술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송도파크호텔의 총지배인이자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부회장인 조학영씨는 한국 소믈리에 1세대다. 그는 1977년 대학 졸업 후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훗날 그랜드힐튼, 메이필드 호텔 등에서 근무하며 와인을 몸소 배웠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원에서 와인 소믈리에 과정을 마치고 스페인에서 유학하면서 와인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세웠다. 그는 와인은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며, 소믈리에에는 그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와인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사교의 수단이자 비즈니스의 목적을 달성케 하는 도구로써 의미가 큼니다. 또 소믈리에에는 우수한 와인을 고객에게 제공해 식사하는 시간을 더욱 빛나게 하고 비즈니스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요.”

조학영씨는 서울의 특급호텔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인천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제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믈리에의 눈으로 본 국제도시 인천의 모습이 궁금했다. 그는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배후로 컨벤션 센터, 기업, 호텔 등 인프라를 갖춘 송도국제도시의 미래를 밝게 내다봤다. 그리고 인천이 크게 발전하려면 먼저 국제화(Globalization)라는 전제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면, 국제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는 ‘와인의 힘’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호텔의 총지배인이자 소믈리에로서 본연의 위치에서 인천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고른 와인은 식사시간을 의미 있게 하고 서비스의 품격을 높였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하루 15~20명 팔리던 와인이 그가 온 후 300~400명씩 팔리고, 주말이면 고객 10여 쌍이 서울 등 인근 도시에서 호텔을 찾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프랑스 국영항공사인 에어프랑스 본사로부터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 데에 대해 감사의 인사도 받았다. 그가 추천한 와인 한잔,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인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 와인. 그 아름다운 빛과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이 사람들의 마음에 인천을 아로새기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섬세한 미적 감각을 지닌 소믈리에, 조학영이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 ‘사각의 링’에서 꿈을 키운다

‘여자 타이슨’ 김효민 선수

양다문 입술, 상대를 제압하는 매서운 눈초리, 게다가 돌주먹.

김효민 선수(28, 인천청산호권투체육관)는 세계슈퍼페더급 잠정 챔피언(57,58kg)이다. 잠정 챔피언은 원 챔피언이 일정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챔피언 방어전을 하지 않으면 선정된다. 김 선수는 2009년 10월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페더급 챔피언에 올랐지만 더 큰 무대에서 뛰려고 타이틀을 반납한 뒤 체급을 올려 WBA 무대에 도전했다.

김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때 태권도를 하다 권투선수의 길로 들어섰다. 권투를 한다니까 매 맞고 배고픈 운동을 왜 하나며 가족과 친지들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이미 권투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기에 태권도로 단련된 운동감각으로 복싱 세계에 뛰어들었다. 아마추어 선수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아마추어 전적이 27전 26승1패로 26승 모두가 KO승이었다. 그야말로 남자 못지 않은 가공할 펀치를 자랑해 ‘여자 타이슨’이란 애칭도 얻었다. 2007년 김 선수는 프로로 전향했다. 좀더 큰 무대에서 세계를 향해 뛰는 선수들과 실력을 겨뤄보기 위해서다.

프로 데뷔 이후 기량은 더 향상됐다. 현재 5전4승1무를 기록,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터져나오는 좌우 혹은 남자선수 뺄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선수의 연이은 우승은 열악한 환경에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정신력과 자기관리의 결과다. 경기가 없을때도 아침 2시간, 오후 3시간씩 런닝, 스파링, 백치기 등 체력훈련을 거르지 않는다. 오직 피나는 연습만이 타이틀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 선수는 지난 3월 경남 진주에서 WBA슈퍼페더급 타이틀매치 1차 방어전에 성공했다. 관객들이 경기장을 가득메워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경기에 이긴것도 좋았지만 많은 관중들이 자신의 경기를 보러와 준 것에 가슴 뻐근함을 느꼈다. 김 선수는 권투가 비인기 종목이라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경기를 보러오는 관객이 있고, 환호하는 관중을 보며 힘을 얻는다. 인천에서 타이틀매치 2차방어전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그런 이유다. 김 선수는 “우승을 향해 계속도전하고 싶다. 도전과 방어를 통해 슈퍼페더급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래도록 있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복서이면서 인천을 빛내고 있는 복서 김효민 선수. 오늘도 앞으로 있을 방어전을 위해 링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고향 인천에서 자신의 멋진 흑과 펀치를 보여주고 싶은 간절한 희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 ‘씹는 즐거움’으로 건강과 행복을 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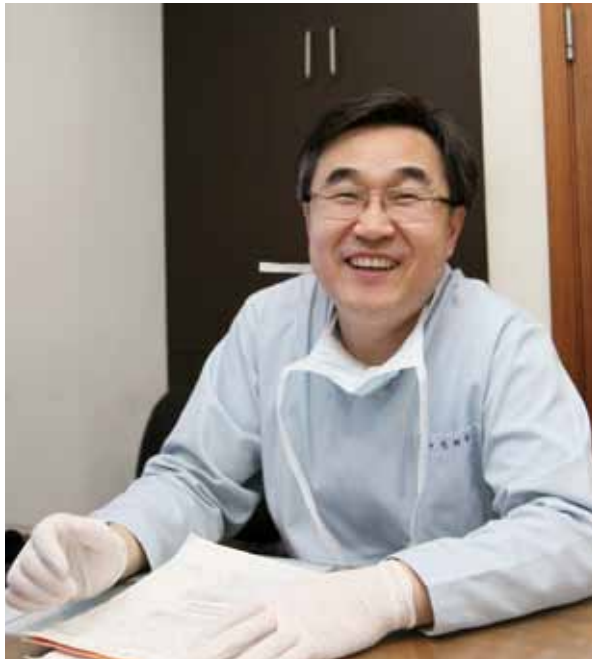
노인들에게 치아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지를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치과치료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어마어마해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더 그렇다. 우리시는 어르신 의 이러한 걱정을 덜어 드리고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의치보철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 치아가 건강해야 삶이 행복해요

치아건강은 예로부터 오복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 치아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지를 만큼 중요하다. 치아가 약해서 잘 씹지 못하면 잘 차려진 진수성찬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게다가 문제는 음식을 맛보고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결국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 하지만 치과치료를 하고 싶어도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치과치료를 할 엄두를 내기가 힘들다. 우리시는 이러한 걱정을 덜고 어르신의 건강을 찾아 드리기 위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65세 이상 75세 미만 차상위 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 이웃을 위해 재능을 나누다

“의치 상태는 어떠세요? 씹는 데 불편함은 없으시죠. 귀찮으시더라도 꾸준히 내원하면서 관리하셔야 해요.”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우리치과의원(516-3006)의 김려수 원장이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진료하고 있다. 김 원장은 처음 저소득층 의치보철사업을 시작한 9년 전부터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일년에 2~3분의 어르신이 그의 손길로 씹는 즐거움과 건강을 되찾았다. 사실 좋은 뜻에 공감하더라도 영업을 하는 의사로서 사업에 참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의치보철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군비 50%로 지원하는데 지원비가 시가보다 낮고 또 단순히 시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저는 재능을 기부할 뿐입니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재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75세 미만 차상위 계층  
추진기간 : 2011년 1월~2014년  
내용 : 의치보철 시술비의 100% 지원  
(시비 50% 구군비 50%)

#### 시술절차 및 검진기관

- 1차 보건소 : 보철 가능한 대상자 선정, 병의원에 시술의뢰
  - 2차 치과의원·국립병원 치과 등에서 시술
- 문의 : 시 보건정책과 440-2746

### 예쁜 치아로 자신 있게 활짝

이 같은 진실된 마음과 정성이 있어서일까. 의치보철 치료를 지원받은 어르신들의 만족감도 크다.

“여느 노인들을 봐도 내 치아가 가장 예뻐. 10년이 넘게 이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솜씨가 좋고 참 친절해.” 김봉자(75, 갈산동) 할머니는 의치를 하니 씹는 것도 편하고 보기도 좋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정순애(가명 63, 부평5동)할머니는 65세가 되지 않아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특별히 지원을 받았다.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갖은 고생을 하며 바빠 살았고, 그러다보니 성한 치아가 8개 밖에 없을 만큼 치아상태가 망가지는 줄도 몰랐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고통을 참으며 수년을 견뎌야 했다. “너무 아파서 치과치료를 받으려고 5년을 꼬박 일해서 돈을 모았어. 겨우 450만원을 모았는데 그마저도 치료를 잘못 받아 치아가 다 망가져버렸지.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 할머니는 내 돈 내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기에 처음에는 차별 받을 것을 감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상처 받지 않도록 더 친절을 베풀고 정성껏 치료해 주어 마음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다.

평소에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음식을 잘 씹고 잘 먹을 수 있다는 건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복이다. 어르신이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통해 씹는 즐거움을 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인기스타, 인천을 홍보한다



우리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천 문화관광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기스타 위성, 박정민, 노브레인, 봄여름가을겨울, 호란, 박상철, 비앙카, 크리스티나를 ‘인천 문화관광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4월 25일 시청에서 가진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중심으로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동북아 관광허브도시 인천’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해주시기를 당부하며, 위촉패를 전달했다. ‘인천 문화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들 스타들은 앞으로 다양한 축제, 천혜의 자연경관과 농·산·어촌이 어우러지고,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매력적인 관광도시 인천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게 된다. 평소 인천 문화·예술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던 노브레인, 봄여름가을겨울은 7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한류스타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박정민과 위성은 오는 8월 13일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인천한류페스티벌’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인천 관광 홍보에 발벗고 나선다. 문의 : 인천관광공사 220-5112

인천부동산광장 인터넷 서비스 제공

우리시는 1985년부터 촬영한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을 바탕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용도지역, 개발계획 등 모든 부동산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천부동산광장(imap.incheon.go.kr)’ 인터넷서비스를 3월 2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인천부동산광장’은 고해상도의 항공·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연도별 항공사진을 시계열로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인천의 과거부터 현재의 모습과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의 미래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주소 창에 ‘인천부동산광장(imap.incheon.go.kr)’을 입력해 직접 접속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맵(i·map)시스템은 인천시 공무원 모두가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별업무 담당자가 직접 업무에 활용 가능한 도면작성을 할 수 있으며 맵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문의 : 시 토지정보과 440-4584



인천 섬 지역 운항 확정

응급환자의 회생은 시간과의 싸움이 다. 적정치료가 빠를수록 치료결과는 좋아진다. 중증외상은 1시간, 심근경색은 3시간, 그리고 뇌졸중은 3시간 이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의 도서(섬) 지역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서비스(Helicopter Emergency Medical Service, 가칭 닥터헬기)가 개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남과 함께 우리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닥터헬기를 시범운영하는 시·도로 최종 선정했다. 헬기 배치 의료기관은 가천의료재단 길병원으로 선정했으며, 이 헬기는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출동요청을 받으면 병원에서 의사를 태우고 5분 이내에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로 7월경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소방방재본부 870-3071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0억원씩 총 8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인천신보재단은 이 출연금을 기반으로 4월부터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부족으로 자금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는 창업기업 5천만원, 제조업, 성장산업 기업 3억원, FTA 관련 수출기업 6억원이다. 보증대상 기업선정은 시와 인천신보재단,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의 추천으로 이뤄진다. 문의 : 신용보증재단 260-1500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된다

웅진군 덕적도에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에코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4월 26일 인천지역 6개 발전회사와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와 이들 발전회사는 오는 2014년까지 약 300억원을 들여 덕적도에 태양광·풍력·바이오·조류발전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691가구가 거주하는 덕적도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신성장동력과 440-4342

시 홍보매체, ‘인천시미디어’로 보세요

우리시는 4월 1일부터 시청 관련 소식과 정보를 담은 각종 시청홍보 매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터넷과 인쇄 매체로 서비스하던 인터넷방송(Mint-TV), 인터넷신문(I-View), 월간지 〈굿모닝 인천〉 등 시청 관련 매체를 모바일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천시미디어’를 개발했다. 시청홍보 미디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는 광역지자체 중 최하다. ‘인천시미디어’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해 모든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한다.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거나 QR코드를 스캔 혹은 smart.incheon.go.kr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시 대변인실 440-8303



달튼외국인학교 국내학력 인정 인가

9월 개교예정인 청라지구 달튼외국인학교가 국내 외국인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 인가를 받았다. 달튼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은 학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거나 학생 본인의 해외 체류기간 합산이 3년(1천95일)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학생 모집정원은 총 500명이고, 연간 수업료는 초등학교 1천5백만원, 중학생 1천8백만원, 고등학교 1천9백만원이다. 학비와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www.daltonschool.kr)를 참고한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334

방사선 누출 검사 측정장비 구입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누출 영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지역 수돗물과 식품, 수산물의 방사선 검사를 위해 측정장비를 긴급 구입했다. 연구원은 또 대기 및 빗물 중의 방사선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지역방사능측정소가 인천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급 협의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번 방사선 검사를 위해 예비비 1억7천900만원을 들여 방사선 측정장비를 구입해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방사선 측정장비 구입으로 지난 4월부터 농산물도매시장 및 대형유통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의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440-5597

송도글로벌캠퍼스 9월 개교 전망

외국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 종합대학 형태를 이루는 국내 첫 교육모델인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오는 9월 개교할 전망이다. 최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5·7공구 29만 5천㎡에 조성 중인 글로벌캠퍼스는 현재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10개 안팎의 외국대학을 유치, 학생 수 1만 명 가량의 캠퍼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뉴욕주립대 스톤브룩이 글로벌캠퍼스에 학교 설립을 신청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 조지메이슨대는 내년 9월, 벨기에 겐트대는 2013년 9월 개교한다는 일정을 세우고 있다. 송도글로벌캠퍼스㈜는 오는 8월까지 글로벌캠퍼스 1단계 준공을 통해 뉴욕주립대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후속 대학 개교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333

국공립보육시설 24곳 증설

우리시는 학생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 올해부터 국공립보육시설 24곳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올해 중구 운남동과 운서동, 계양구 작전동, 서구 청라지구, 웅진군 영흥도에 국공립보육시설 5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시교육청이 유휴교실을 시에 무상임대하면 시와 구·군에 예산을 투입, 교실을 리모델링한 뒤 기자재를 구입해 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25%, 구·군비 25%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1개 학교당 유휴교실 3개씩을 활용해 정원 45명 규모의 보육시설을 만들고, 저소득층 지역아동과 교직원 자녀 등을 수용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892

인천대공원 내 사계절 썰매장 개장

우리시 동부공원사업소는 인천대공원 내 사계절 썰매장을 지난 4월 15일 개장했다. 인천대공원 썰매장은 145m 길이의 곡선 슬로프를 갖추고 있으며 1인용 또는 가족용(2~4인용)튜브썰매를 탈 수 있다. 봄 시즌 썰매장 운영기간은 오는 6월 19일까지이며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이용요금은 어른 7천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4천원이다. 문의 : 시 동부공원사업소 465-1524





### 인천대교의 밤이 황홀해진다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영종도~송도국제도시)가 형형색색의 야간경관조명을 갖추고 올해 하반기부터 밤마다 장관을 연출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도시경관 개선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인천대교에 32억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구간은 인천대교의 해상 구간 3.26km(사창교 1.48km, 접속교 1.78km)이다. 이 구간에는 770여 개의 조명을 설치해 밤 풍경을 바꾸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7월 시운전을 거쳐 8월부터 조명이 본격 가동하면 항공기를 이용,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야간에 기내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085



### 글로벌서비스센터 오픈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소통과 교류를 돕기 위한 '글로벌서비스센터'를 최근 송도국제도시에 열었다. 센터는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1층에 125㎡ 규모로 마련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센터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위촉돼 인천경제청직원과 함께 근무한다. 인천경제청은 센터 내에 외국인 애로상담과 설문조사를 위한 건의함을 설치하고, 5월 외국인 주민간담회와 9월 외국인 영어 에세이 대회를 각각 열 예정이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662



### 아시아 뷰티메카로 발돋움

우리는 전국 최초로 뷰티도시를 표방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아시아의 뷰티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추진 배경에는 인천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이 소재하는 입지적 장점과 13억 인구의 중국, 일본, 동남아를 배후로 하고, 서울, 경기 등 2천300만 수도권의 방대한 뷰티 잠재 고객의 인천 유치를 추진하여 뷰티산업을 의료, 자연, 테마, 레저관광 등과 연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리는 글로벌 뷰티기업 육성, 세계인이 찾아오는 뷰티 특화도시 육성, 구도심 균형발전, 청년일자리 10만개 창출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예산이 적게 드는 사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시 일자리창출과 440-4232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위촉식

우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4월 14일 연수구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서포터즈 도우미 위촉식을 거행했다. 서포터즈 도우미는 시민 서포터즈를 지원할 공무원 서포터즈 도우미다. 시는 언어에 능통하거나, 해외 파견근무 유경험자, 외국어 정예과정 이수자, 국가 연구자 등 시군구 직원 1천24명을 모집했다.

위촉식은 공무원 동호회 '공무수행밴드'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OCA 회원국 권역별 기수단 입장, 서포터즈 도우미 위촉장 수여, 우리의 다짐 낭독, 성공다짐 퍼포먼스, 전문강사 초빙 강연 순으로 진행했다. 송영길 시장은 서포터즈 도우미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의 위상을 높여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포터즈 도우미의 열정과 애정, 땀방울이 서포터즈 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440-2426



### 벤처기업 육성한다

우리와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1세대가 손잡고 벤처창업인 육성에 나선다. 시는 벤처 인큐베이팅 업체인 프라이머와 오는 5월 2일 협약식을 맺고 공동으로 벤처 기술분야 및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 창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프라이머는 인터넷포털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인 이재용 대표, 네오위즈 창업자인 장병규씨(본 엔젤스 대표), 권도균 이니텍 창업자, 송영길 엔컴퓨팅 창업자 등 국내 벤처 1세대 기업인 4명이 모여 지난 2009년에 만든 기업이다.

우리는 남구 도화동 제물포에 위치한 옛 인천대학교 본관건물에 제물포 스마트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곳에 벤처·기술분야 50명, 지식서비스분야 25명 등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75명에게 창업준비 공간을 제공한다.

문의 :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440-3264

### 녹색마크 친환경제품 사세요

우리는 저탄소 녹색소비 문화확산을 위해 친환경경상품 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친환경경상품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해 자원절약을 기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관련법에 의거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인증)상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우수재활용 인증상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이다.

시는 시민들이 친환경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남동구 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내 1층에 판매장을 마련하고 녹색인증마크를 받은 사무용품,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주방 및 욕실용품, 의류, 여성 및 유아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문의 : 친환경상품 판매장 821-0047

### 생활필수품 중점 관리 나선다

우리는 지난 4월 8일 물가모니터 요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생활필수품과 정부 중점관리 품목 등에 대한 가격안정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최근 물가동향과 시의 물가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정확한 가격조사로 물가 감시 기능 강화와 요금이 과다하게 인상된 곳이 있으면 시 및 구·군에 알려 가격인하에 적극 협조토록 하는 등 시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가격조사를 통한 물가 감시를 강화하고 그동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SSM(기업형슈퍼마켓)까지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 운영해 서민 물가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문의 :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203

### 경기도 시외버스 인천 광역버스로 전환

우리는 경기도 시외버스 7개노선 32대를 4월 말까지 우리시 광역버스로 전환했다.

이번에 시 광역버스로 전환되는 노선은 ▶9800번(가좌동~부평구청~양재동, 12대) ▶9801번(석남동~당하·원당지구~양재동, 8대) ▶9802번(왕길동~장기동~양재동, 5대) ▶9900번(인천터미널~한화지구~강남터미널, 4대) ▶9902번(연수동~인천터미널~대방역, 3대)이다. 시외버스에서 광역버스로 전환되면서 요금은 현재 2천6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인하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도 가능하게 됐다.

문의 : 시 버스정책과 440-3963

### 장애인콜택시 증차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현재 104대에서 122대로 증차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3일 장애인콜택시 8대를 증차하고, 6월초부터 10대를 추가 투입기로 했다. 시가 장애인콜택시 증차로 인해 그동안 사전 예약시간 지연으로 초래됐던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콜택시 차량 증차 이외에도 배차시간 조절을 통해 실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440-3804



### 예비사회적기업 31개업체 지정

우리는 정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보다 요건을 완화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31개 업체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공모에 참여한 5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구·군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 내용의 우수성과 고용창출의 지속성 등을 평가해 최종 결정했다. 시는 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사업아이템이 우수한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 48개사를 선정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다.

시는 올해 100개 업체 이상의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300개사의 사회적기업을 길러낼 계획이다.

문의 : 시 일자리창출과 440-4552







태국 방콕시의회 초청 방문

인천시의회 대표단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상호교류 관계에 있는 국제우호교류도시 태국 방콕시의회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다.

방문기간 동안 대표단은 태국방콕시의회 의장, 방콕시장 및 태국 체육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방문하고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도시의회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우호교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고 태국의 주경기장을 둘러보며 우리 인천 서구에 새로 신축하게 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 또 태국의 각 기관을 방문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대형건설업체 임원초청 간담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소관부서에서 발주한 대형건설업체 임원들을 초청해 오찬 겸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대형건설업체 23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7개 업체에 대하여 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제19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제고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건설업체가 술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의 자재 및 인력, 장비 등을 사용하여 줄 것과 공사 중 민원발생 최소화화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안’ 모의의회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방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정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학생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제64회 학생모의의회는 남동구 소재 도림고등학교 2·3학년 학생 36명이 참석해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안’, ‘학생 교복 반바지 착용안’ 등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안건을 갖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에 참석한 도림고등학교 3학년 이상훈 학생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실연을 통해 열린 질문과 토론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의 회의과정을 체험했다. 앞으로 정치 지도자의 꿈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각각의 역할부여와 토론을 통해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문화 학습으로 시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5~6회씩 실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일대 주요현장 시찰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제19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모로우시티, 글로벌대학캠퍼스, 컴팩 스마트시티를 현지시찰 했다.

위원들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건설, 왕산마리나 조성 사업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투모로우시티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돌아봤다.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현장에선 대학강의동, 기숙사동 공사진척도 보고를 받았다. 또 연수구 인천타워대로에 위치한 컴팩스마트시티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AG 후원서 협정 체결

인천시의회는 최근 서울·경기도 의회가 함께하는 가운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후원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서 체결은 수도권 3개 시·도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며, 힘을 모으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국가체육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의 재정부담 가중과 주 경기장을 포함해 대회시설 건립이 지연된다는 지역 여론이 이번 협정서 체결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발전 방향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18일 의총회의실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활력넘치는 공직을 위한 역량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에 대해 주제를 발표한 김동원 인천대 교수는 “인천시 인사는 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급급한 모습,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와 시민이 원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스스로 프로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제대로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병 시의원은 “여성공무원 지원제도를 확실하게 운영하고, 전문성 있는 소수의 직렬은 그 분야의 직렬이 수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건전화특위 워크숍

인천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시 교직원수련원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이번 워크숍에는 특위위원 9명과 인천시 관계자와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그동안 각 실국에서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위기에 원인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에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교육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원(민주·계양3)은 인천시 교육의 문제점 분석과 중·장기 교육발전을 위해 언론계, 교수, 학부모, 시민단체, 학계, 시의회 등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하고 4월 12일부터 개최된 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식 제안했다.

이는 지난 3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결과, 인천이 전국 꼴찌를 기록함에 따라 인천시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어린이과학관 현지시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위원회 소관 기관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어린이과학관을 다녀왔다. 위원들은 인천아트플



랫폼에 대해 토착화된 문화역량이 부족한 인천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등 젊은층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레지던시 사업이 일부작가들의 사유화 우려가 많은데 인천작가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구도심을 활용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고,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었다. 또 5월 개관하는 어린이과학관에서는 진입로가 좁고 불편하여 문제가 심각한데 따른 인천시와 계양구의 개선계획, 리플렛 등 안내문에 이용연령이 만으로 표기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학제 기준에 맞추어 일괄적인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 탐방 ⑤ 건설교통위원회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량 모아



지역의 경기를 살리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를 해소해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의정활동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는 올해 인천시의 발전적인 미래건설과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정책 제언, 시정에 대한 민의 반영을 최우선으로 삼아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첫째 서민생활 안정화, 지역현안 사항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적극참여, 둘째 균형있는 지역 발전과 현실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현장주주의 의정활동 강화, 셋째 인천시의 핵심적인 20개 사업 추진을 중점 방향으로 삼았다. 인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구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족한 예산은 인천시와 힘을 합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행정처리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금조성으로 기반시설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향을 세웠다. 위원회는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발빠른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 의무공동도급률 49%를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해 저가 입찰 등에 따른 단가하락을 막고, 지역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해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시민과의 소통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올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와 릴레이 간담회를 한 달간 열어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중점추진 사항을 만든 바 있다. 지난 4월 18일에는 우리시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주요임원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위원회는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멋진 도시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가 해야 할 임무로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 분야별 전문가와의 간담회, 중요 정책에 대한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성 향상만이 시민들의 현안사항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지름길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의견을 더 경청하기 위해 현장시찰, 공청회, 워크숍을 자주 열 계획이다.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등 시민의 최대 관심이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감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인터뷰 \_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균형발전만이 인천의 살길”



“올해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정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실현 ▷신, 구도심 균형발전을 의정의 중점방향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김병철 위원장(서구 제3선거구)은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개발이 인천을 살리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균형개발이라는 명제가 쉽지 않은 난제이지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천시민이 살맛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선 꼭 이뤄야 할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차원에서 인천 도시계획 방향의 한 획을 그을 '인천도 시재생사업본부'의 구성을 이끌어 냈다. 김 위원장은 인천 토박이답게 인천에 대한 애착이 크다.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 제192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시 집행부나 시민과의 소통도 현안 보고만 듣는 방식이 아닌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상호협력하는 소통을 중시한다. 올 들어 소관부서와 한달간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의 어려운 점, 위원회가 도와줄 점,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여기서 건설위가 올해 해야 할 중점추진사업 20개를 만들어 냈다. 김 위원장은 시의원들의 진정한 전문성은 시민들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 지역의 현안문제, 현장감에 대해선 시민을 따라올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시민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되는 부분만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인천의 구도심을 사랑한다는 김 위원장. 그 가운데 구도심 중의 구도심인 중구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는 오늘도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구도심 재생사업이 성공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구도심 활력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클릭! 시의원 \_ 김영분 의원(남동구 제1선거구)

‘보육도시 인천’ 엄마 마음으로 실천

엄마의 마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영분 의원(남동구 제1선거구).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동과 사회복지 전문가로 쌓아온 이력이 제6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하는 디딤돌이 됐다. 김 의원은 인천의 환경과 녹지 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소래포구에서 소래생태공원을 잇는 둘레길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곳의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람들이 다니기도 어렵고 소래포구 관광지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인천의 자랑이자 축복받은 공간인 '소래포구'를 살리고,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선 인천 대공원~소래습지생태공원~소래포구를 잇는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지역구 의원답게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데도 남다르다. 사할린 동포, 새터민, 편부, 편모 가정의 아프고 어려운 현실을 지원하고 돕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그들의 문제를 가슴깊이 느끼고 있기에 시의원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좋은 인천 만드는 것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는다. 친환경 경무상급식과 보육시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시의원을 떠나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인천을 만드는 데 최일선에서 활동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표출한다.





## ‘미터법’ 전환 근대화 신호탄

글 조우성 시인 ·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도량형(度量衡)’이란 단어는 의외로 낯이 설다. 많이 쓰긴 쓰는데, 그 뜻을 설명해 보라면 망설이게 된다. “길이, 부피, 무게 또는 이를 재거나 다는 기구 혹은 그 단위법”이라고 답하면 정답이다. 더 자세히 풀이하면, ‘도(度)’는 길이 또는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자, ‘양(量)’은 부피 또는 되, ‘형(衡)’은 무게 또는 저울을 뜻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길이, 부피, 무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양을 헤아리는 행위와 그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이나 기준으로서의 단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계량 또는 계측이라는 의미까지도 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그 개념은 언제부터 싹 틔울까? 아마도 먼먼 고대부터였으리라 짐작된다. 사람이 모여 마을이 생기고, 곡물을 생산해 저장, 관리하면서 신체의 일부를 초보적인 도량형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그 후 경제생활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물물교환이 불가결한 생활수단이 되고, 그때마다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규준이 되는 도량형을 요구했을 것은 당연한 이치다. 손바닥을 펴서 길이를 재고, 손을 움켜쥐려 양을 가늠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량형 역사도 꽤 오래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은 나라 밖 세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최근세까지도 땅은 평평하고, 하늘은 둥글다고 믿었다. 바다 멀리 나가면, 세상의 아래로 떨어져 황천으로 간다고 생각했으니

말과 피부색이 다른 수많은 인종과 나라가 세계에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고려시대에 처음 만든 ‘건원통보’를 비롯해 동국중보, 해동통보, 상평통보 등도 중국의 엽전을 본뜬 것이었고, 모습을 ‘원형방공(圓形方孔)’ 즉 ‘둥근 모양에 네모난 구멍’이 뚫린 형태로 한 것도 그들의 우주관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 엽전 중에 가장 활발히 유통된 것은 1678년(숙종 4)에 만들기 시작한 상평통보인데, 인천이 개항되던 해인 1883년 서구식 조폐국인 전환국(典圀局)이 설치되자 자취를 감춘 것은 생활경제사 변천의 중요한 대목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가 비로소 ‘세계’와의 교류에서 통할 수 있는 근대적 화폐를 만들기 시작한 혁명적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그 같은 경제 개혁의 길을 명문화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이었다. 비록 피동적인 제도상의 개혁으로서 식민지화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비판은 있으나, ‘도량형의 개정’ 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대화를 촉진시킨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도량형기는 중국의 것을 표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중국에서와 같은 도량형 제도를 도입하여 기강을 세우려고 애를 써 왔으나 관료, 지주, 상인들이 도량형 기구의 규격을 제멋대로 늘려 빌려줄 때는 적게 주고, 되받을 때는 많이 거두어 궁핍한 백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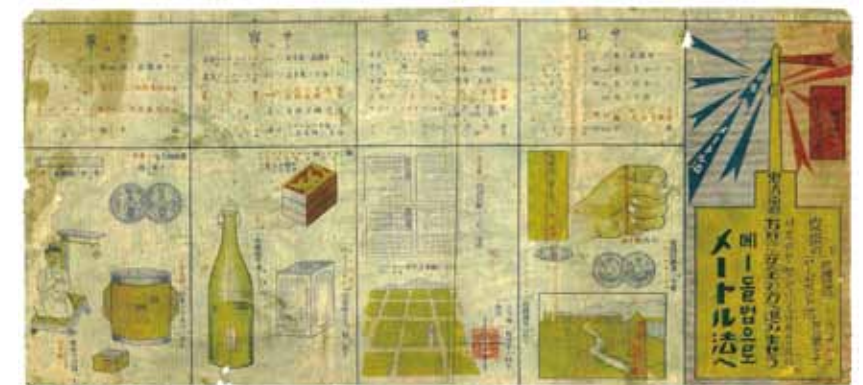
착취해 사회와 경제 질서를 무너뜨렸던 예는 허다했다.

더 큰 문제는 개항 직후 나타났다. 국제 교역에 비로소 나서자 서로 다른 길이와 무게와 부피를 환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고, 그 자체가 무역활동을 저해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같은 인식 아래 우리나라가 세계가 인정하는 공통의 도량형을 도입한 것은 그 한참 뒤인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1호 ‘도령형법’을 공포한 뒤였다.

그러나 도량형의 근대화는 생각보다 더더 민간에서는 전통적으로 써 왔던 척관법을 더 애용했다. 오래전부터 역대 정부는 미터법 사용을 역설해 왔지만, 1자는 30.3cm, 1관은 3.75kg, 1되=2,4리터, 1평은 3.3㎡... 이런 식으로 척관법과 미터법을 혼용해 왔던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택의 넓이를 나타낼 때는 ‘평(坪)’을 써 왔는데, 이 같은 척관법은 한국형 온돌아파트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는 오늘의 국내외 경제와 무역 상황과는 거리가 먼 이중 잣대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산업규격에서는 ‘평’ 대신 제곱미터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7월 산업자원부는 ‘평’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할 때는 적지 적은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일상에는 자, 간, 정, 리(길이), 평, 단보, 정보(넓이), 홉, 되, 말, 섬(부피), 돈, 냥, 근, 관(무게)이 머뭇거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세계 10대 무역국가의 위상은 말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온갖 상품을 만들어 지구촌 오대양 육대륙 시장에 내다팔아야 사는 우리사회가 정착 세계에는 통하지 않는 전통 도량형을 묵수한다면, 그것 또한 쇠국주의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미터법을 적극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본다.



‘미터법’ 선전 포스터. 일제강점기 때 발행된 것으로 ‘메둘법(미터법)’으로라는 제목과 함께 ‘종래의 척관법은 버리고 서로 안전한 대로 나아갑시다’란 문구가 보인다. <조우성>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다양한 도량 관련 물건의 실제 모습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 잃어버린 꿈 인천에서 되찾다

글 팜티니(주부, 베트남)



나는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민자 ‘팜티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인천으로 온 지 3년 되었다. 우리 가족은 꿈 세 마리다. 착한 아빠 꿈은 회사에 다니고, 귀여운 아들 꿈은 생후 16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예쁜 엄마 꿈은 진정한 인천댁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늦깎이 고등학생이다.

나는 남편과 짧게 만난 뒤 결혼했다. 처음에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한국이란 곳이 마냥 잘사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무작정 결혼해 걱정도 많고 두려웠다. 살아보니 남편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처음 만났을 때 보다 지금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의 열매로 예쁜 우리 아들 귀여운 ‘태호’ 꿈이 태어났는데, 모습은 나를 닮았고 성격은 아빠를 닮았다.

내가 인천댁이 된 지도 벌써 3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다. 한국 말과 한국 풍습을 잘 몰라 불편했고, 날씨가 추워서 감기를 달고 살았다. 한국음식의 맛과 냄새가 이상해서 잘 먹지도 못했다. 친구도 없어서 많이 외로웠고 밤이면 남편 몰래 이불 속에서 고향 베트남을 그리워하며 많이 울었다. 한국에서 오래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고 한국행을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꿈을 잃지 않도록 늘 가까이서 지켜준 사람은 남편과 인천에 사는 외국인을 도와 주는 인천외국인종합상담소였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처럼 도움을 주었고 따뜻하게 대해줘 하루가 다르게 점점 행복해졌다.

남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항상 웃어 주고 실수해도 화 내지 않고 슬플 때는 안아 주고 위로해 주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나는 가방을 들고 상담소로 가서 하루 세 시간 이상을 한국어 공부와 한국 문화를 배웠고 그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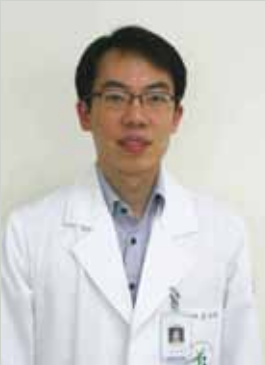
서 나와 비슷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중국에서 온 ‘왕리에’, 캄보디아에 온 ‘라이’, 몽골에서 온 ‘몽크토야’씨 등 인천댁이 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깊은 우애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어려운 시간이 지난 후 한국, 한국인, 인천을 알게 되었고 한국 친구도 많이 사귀고 김치도 잘 만들고 맛있게 먹는 인천댁이 되어 가고 있다.

인천으로 오기 전 베트남에서 가정형편 상 중학교까지만 다녔다. 지금 늦었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열망에 나의 꿈을 이해하는 남편을 만나서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다. 늦깎이 고등학생이지만 행복하다.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 인천에 와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았다. 내 꿈은 통역사가 되는 것이다. 나처럼 한국에 와서 힘들어 하는 베트남 친구들을 돕고, 봉사를 하는 멋진 통역사가 될 것이다.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할 것이고 아름답고 행복과 꿈이 넘치는 도시 인천에서 살 것이다. 인천은 내게 제2의 고향이다.

지난 3년은 아주 짧지만 태어나서 자란 베트남의 고향보다 더 많은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고난과 좌절을 행복과 희망으로 바꾸어 준 고마운 도시 인천에서 나는 영원한 꿈 세 마리가족의 인천댁으로 남을 것이다.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항상 웃으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다. 나는 돈은 없지만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가정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로운 아내와 현명한 엄마, 훌륭한 인천시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고 늘 봉사하며 살겠다.

## 편도선 수술 해야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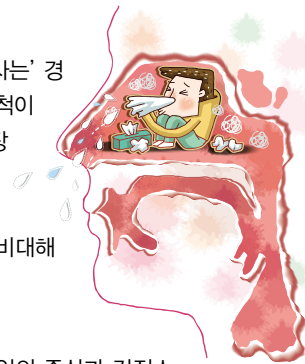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편도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두 내의 다양한 편도 조직의 하나인 구개 편도이며, 아데노이드는 코 뒤쪽에서 목으로 연결되는 비인두 부위의 대표적인 편도 조직을 말한다. 이 부위에 만성적인 염증이나 비대증이 생기면 축농증, 입냄새, 코골이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글 김태욱 인천의료원 이비인후과 과장

### 편도선과 관련된 증상은 무엇인가요?

소아는 코막힘, 삼출성 중이염, 축농증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흔히 ‘감기를 달고 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심한 코골이 혹은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 밤에 뒤척이면서 편히 자지 못해 성장 발육도 느려진다. 또 항상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 얼굴 성장에 영향을 주어 얼굴 길이가 길어지고 아래턱이 뒤로 밀리면서 위턱이 돌출할 수 있고 부정교합도 나타난다. 성인은 주로 만성적인 인후통, 입냄새, 입에서 찌꺼기가 나오는 증상, 목에 멍울이 자주 잡히는 증상 등을 호소한다. 성인들도 종종 편도선이 비대해진 경우가 있고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할 수 있다.



### 수술은 언제 하나요?

편도선 및 아데노이드와 관련된 증상은 다양하므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증상과 검진소견에 따라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 일단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편도선을 잘라내도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편도와 아데노이드는 국소 면역 기능과 신체방어 체계를 담당하는 면역기관이다. 그러나 편도의 면역학적 활동성은 4~10세에 가장 활발하며 그 이후는 급격히 퇴화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하는 편도선 절제술은 인체의 면역 기능에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그보다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으면 면역기능이 떨어지는지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으나, 적어도 중대한 면역 결핍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안을 통해서 모든 수술을 진행한다. 성인은 간혹 국소마취로 시술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전신마취 하에 실시한다. 보통 수술 후 다음 날 정도면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 ※ 편도선염 예방을 돕는 생활습관 베스트 4

- ① 외출을 하고 오면 손을 깨끗이 씻는다.
- ② 규칙적인 양치질로 구강 위생을 청결히 한다.
- ③ 소독제 혹은 소금물을 이용해 자주 가글한다.
- ④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한다.



## 어린이날-한마당 대축제

청소년수련관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재미있고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예쁘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 행사명 : 어린이날-한마당 대축제
- 일 시 : 5월 5일(목), 10:00~16:00
- 장 소 : 청소년수련관(장수동 소재)
- 주요행사 : 비누방울놀이, 굴렁쇠굴리기, 양초만들기, 컵반치, 풍선아트, 초콜릿만들기, 연극 흑설공주 및 버블쇼 공연(걸스힙합, 벨리댄스, 풍물), 어린이 및 가족 장기자랑 등
- 문 의 : 465-6827~8

## ‘미드나이트 포장마차’ 공연

복합문화공간 ‘아트홀 소풍’에서는 포장마차를 찾아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듯하고 화극적으로 무대에 올린다.

- 작 품 : 미드나이트 포장마차
- 일 시 : 5월 19일~6월 5일  
(평일 8시, 토요일 3, 6시, 일요일 3시 / 월요일은 쉼)
- 장 소 : 복합문화공간 ‘아트홀 소풍’
-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 문의 : 442-8017, 010-9012-3384

## 광산지역 사진공모전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사진공모전을 연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 공모기간 : 4월 18일~5월 18일
- 공모주제  
광산지역개발로 인한 피해현장 및 복구현장  
광산지역 및 폐광지역 일상,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
- 공모조건 : 폐광지역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문의 : 070-7729-6812

## 오줌싸개 동상

송도센트럴파크에 오줌싸개 동상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즐겨워 하고 있다. 해수로 주변에 설치한 오줌싸개 동상은 상수도를 이용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상택시가 운행하는 기간에 10:00부터 19:00까지 매시간 정시부터 15분간 자동 동작하며 일일 총 10회 오줌을 쏜다.



## 독서기행 등 청소년 문화행사

동구청소년수련관은 5월 청소년문화 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 프로그램명 : 2011 독서기행<환경편>
- 일 시 : 5월 28일(사전수업), 6월 11일(기행일)
- 내 용 : 최열 아저씨의 지구촌 환경이야기1<최열/청년사>
- 기행장소 : 수도권매립지 / 국립생물자원관  
※선정도서를 읽고, 사전수업 진행 후 독서기행 참가
- 시 간 : 사전수업 16:00~18:00
- 대 상 : 초등 3년 이상 청소년 20명
- 접 수 : 5월 11일~14일
- 문 의 : 777-7924

## 가족과 함께 떠나는 그림책 여행

부평기적의도서관은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도서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작가와 만나는 행사로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어른의 세대간 벽을 허무는 뜻깊은 행사다.

- 이달의 책 : <라이카는 말했다> - 이민희 글, 그림
- 일 시 : 5월 26일(목) 오후 6시
- 장 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공연장 어울림
- 참가 대상 및 인원 : 남녀노소 누구나(선착순 150명)
- 참가비 : 무료
- 내 용 : 오프닝 공연, 가족의 책 낭독회, 그림책 원화 전시  
이민희 작가와의 만남 및 대화, 함께하는 독후활동
- 문 의 : 505-0612~3, www.bpml.or.kr

## 전국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경인교육대학교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에서는 제1회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연다.

- 일 시 : 6월 11일(토)
- 원고 접수 : 5월 2일~5월 16일(월) 16:00까지
- 장 소 : 경인교육대학교 컨벤션홀(행정동 7층)
- 참가자격 : 전국 다문화 가정의 초·중·고 재학생
- ※ 단, 광역자치단체 또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 한국어나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에서 최근 3년 이내 수상 경력이 없는 자.
- 추후 수상 사실 발견 시에는 수상 취소함
- 참가언어 : 6개 국어(중국어(북경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타갈로그어), 몽골어)
- 참가인원 : 30명(초등부, 중등부 각 15명)
- ※ 예선(원고 심사) 통과한 학생에게만 본선(말하기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짐
- 문 의 : 031-470-6360~1

## 여름학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연수문화원에서는 제38기 여름학기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화활동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강좌기간 : 5월 30일(월)~8월 29일(월) 3개월
- 접수기간
- 기존회원 현강좌 유지 : 5월 2일(월)~5월 8일(일)
- 기존회원 타강좌 및 신규회원  
- 정보화교육(컴퓨터) : 5월 11일(수) 10시부터  
- 문화강좌 및 특별지원: 5월 12일(목) 10시부터
- 접수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 (call.yeonsu.go.kr)
- 접수대행시간 : 월~금 10:00~17:00
- 문 의 : 821-6229

## 노동·생활법을 무료상담

한국노총 인천지역 노동교육상담소에서는 노동·생활법을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린다.

- 시 간 : 월~금 오전 09:00~18:00
- 방 법 :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상담가능
- 상담종류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고소, 고발 구제신청 상담  
- 산업재해, 최저임금, 비정규직등에 대한 관련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이혼, 양육, 상속, 교통사고 등
- 문 의 : 515-4881, 팩 스 : 516-4881

## 집중력의 힘! 우리아이 인생을 결정한다!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서구청소년지원센터가 연합해 공동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자녀의 학습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집중력'에 대해 짚어보고, 부모로서 자녀의 집중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본다.

- 일 시 : 6월 1일(수) 10:00~12:00
- 장 소 :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전성일  
(서울시 노원정신보건센터장 / EBS멘토 부모 공저)
- 대 상 : 서구 지역 학부모 200명 내외
- 교육비 : 무료
- 내 용 : 자녀의 집중력 방해의 원인을 검토, 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집중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봄
- 접 수 : 선착순접수, 사전 전화접수 필수(~05월 27일까지)
- 문 의 : 569-1545, 560-5006, 584-1388

## 제1회 환경사랑 논문 공모전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인천소재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환경사랑 논문 공모전'을 연다.

- 주 제  
-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수질·대기·폐기물 관련 사항
- 공모기간  
- 참가신청서 제출 : 5월 2일(월)~31일(화)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재학증명서(or 휴학증명서)  
- 논문제출 : 6월 13일(월)~8월 12일(금)
- 제출서류 : 논문 초록(2매 내외), 본 논문  
- 발표자료 : 8월 23일(화)~26일(금)(1차 논문심사 통과 팀)
- 제출자료 : 논문발표용 PPT파일(15분 분량)
-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 수상작 발표 : 9월 2일(금)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인(팀) 100만원,  
우수상 1인(팀) 50만원, 장려상 2인(팀) 30만원
- 문의 : 899-0125, eco-i.or.kr 참조



‘왕초보’ 자전거 안전체험 무료교실

자전거사랑전국연합 인천시지부는 자전거를 전혀 탈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 교육기간 : 4월~6월까지
- 교육일수 : 월~금요일까지 2주간, 총 10일 교육
- 교육시간 : 오전반 10:00~12:00, 오후반 14:00~16:00
- 교육회비 : 무료(자전거, 헬멧 대여포함)  
※ 팔, 무릎보호대 개인준비
- 모집인원 : 1기수 선착순 40명  
(총 7기수, 560명 한정 운영함)
- 모집대상 : 인천시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함
- 교육일자

기수	입교일자	수료일자	기수	입교일자	수료일자
3	5월 2일(월)	5월 13일(금)	6	6월 13일(월)	6월 24일(금)
4	5월 16일(월)	5월 27일(금)	7	6월 27일(월)	7월 8일(금)
5	5월 30일(월)	6월 10일(금)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 신청자격
-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
- － 부양요건 : 18세(2011년은 199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직전년도 6월1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문의 : eitc.go.kr, 국제청세미래콜센터(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5월 문화강좌 안내

가정의달 5월! 미추홀도서관에 오면 즐겁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 가족뮤지컬
  - － 일시 : 5월 14(토) 14:00 ~ 15:00
  - － 작품 : 『용궁으로 간 토끼』
  - － 내용 : 신나고 교육적인 어린이 가족 캐릭터 뮤지컬
- 애니멀 매직쇼
  - － 일시 : 5월 21(토) 14:00 ~ 15:00
  - － 내용 : 다양한 동물들과 마술사가 펼치는 환상적인 공연
  - － 문의 : 440-6662

‘청소년 인천사랑’ 송도시티 자전거 체험기행

- 체험기간 : 4월~6월까지 / 토요일만 운영함
- 체험시간 : 오전 10:00~12:00 까지  
※ 1시간 이론교육 / 이후 자전거투어
- 체험내용 : 10:00~11:00(자전거 안전교육)  
11:00~12:00(전용도로 체험기행)
- 체험회비 : 무료(자전거, 헬멧 대여포함)
- 모집인원 : 1회차 선착순 40명  
(총 6회차 / 240명 한정 운영함)
- 모집대상 : 초등학교 5학년~중등학교 3학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www.bikelovein.org](http://www.bikelovein.org)
- 문의전화 : 427-5434
- 체험일자

기수	체험일자 및 시간		회차	체험일자 및 시간	
3	5월 14일(토)	10:00~14:00	4	5월 28일(토)	10:00~14:00
			5	6월 11일(월)	10:00~14:00
			6	6월 25일(월)	10:00~14:00



2011 vs 2011 05

구독 신청문의 : 032-761-0007  
광고접수·문의 : 032-761-0007

월간 포토기호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간행이력 월간 포토기호

**Photo 기호**

◆ 5월특집  
지상최고의 휴가 ‘크루즈 여행’  
‘로알게리비안 크루즈’

중소기업 탐방  
작지만 강한 소기업 ‘락온볼링’

어린이날 행사  
5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

◆ 기획특집  
인천대산악회  
‘에베레스트’ 7내륙 원정의 정점 7-7

광해군  
조선 역사의 전복과 광해군 시대를 읽다

**기호일보**

인천 흥보 라디오 청취 안내

- “따끈따근한 인천 소식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 경인방송 FM 90.7MHz 플라이스튜디오(매주 월~금 11:50)
  - 교통방송 FM 100.5MHz 굿모닝 인천(매주 월~금 09:50)
  - 경기방송 FM 99.9MHz 인천의 발견(매주 월~토 08:50)

5월 축제 주요 일정

축 제 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주요행사내용	행사문의안내
어린이날 행사	5월5일(목) 11:00	문학경기장 동문광장	에어로켓발사, 비누방울, 매직쇼, 퍼레이드공연, 사랑의 우편엽서쓰기, 뮤지컬 등	시 아동청소년과 440-2882
어버이날 행사 아이리브카네이션 어버이축제	5월6일(금) 11:00	부평공원	건강검진, 발마사지, 무료이미용, 사진전, 가족놀이마당 등	시 노인정책과 440-2812
인천 패밀리축제	5월7일(토) 11:00	문학경기장 동문광장	가족협동화그리기, 가족골든벨, 가족헌법콘테스트 다문화빌리지 아빠와 가족케이크만들기 장기자랑 등	시 여성정책과 440-2873
청소년문화존	5월7일(토) 15:00	부평문화의거리	전통예술동아리공연, 문화체험마당	시 아동청소년과 440-2853
	5월14일(토) 15:00		전통예술동아리공연, 문화체험·놀이마당	
	5월21일(토) 15:00		전통·현대예술공연, 퀴즈,노래대회 전통먹거리 체험	
	5월28일(토) 15:00		전통문화동아리공연 전통공예 체험마당	
입양의날 행사	5월12일(목) 15:00	인천어린이과학관	기념식, 매직쇼, 버블쇼, 사진전 등	시 아동청소년과 440-2883
청소년 금연 건강마라톤대회	5월29일(일) 09:30	문학경기장동문광장	마라톤, 매직풍선, 바디페인팅, 비보이, 댄스 등	시 아동청소년과 440-2842
화도진축제	5월13일(금) 12:00	화도진공원 일원	월드페스티벌, 퓨전퍼포먼스 마살아츠, 어영대장 행렬 공개방송 및 불꽃놀이, 사랑나눔 경매	동구청 770-6102
	5월14일(토) 12:00	화도진공원 일원	다문화가정페스티벌, 실버문화한마당 평양예술단, 트로트나이트 킹 동구주민가요제 등	
배다리문화 축제	5월14일~15일	책방삼거리 ~ 우각로 일원	배다리포럼, 인디밴드공연 책나눔 행사 등	배다리문화축전위원회 422-8630
배다리공예공방 무료체험행사	5월13일~14일	배다리공예상가 체험공방	매듭브릿치 만들기, 민화과반 만들기 나만의 도자기만들기 등	배다리공예상가 011-9117-9808
부평동물축제	5월25일(수) 11:00	부평 신트리공원	인천부평동물고유제, 축원덕담 등	부평구청 509-6421
	5월26일(목) 09:30	부평 신트리공원	부평동물축제 개막식 등	
	5월27일(금) 09:00	부평아트센터 부평구청 7층	부평전국국악경연대회 아시아동물심포지엄 한·미 친선행사	
	5월28일(토) 14:00	부평역 등 문화의거리	개막공연 및 k-아트쇼이스 리허설 부평풍물단, 무형문화재 공연 부평골 왕 장기대회 국악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풍물체험 등	
	5월29일(일) 14:00	부평역, 문화의거리 앞 등	부평풍물단, 무형문화재공연(은율탈춤) 부평평생학습축제 인천부평청소년한마당축제	
흥예문예술축제	5월28일(토) 10:00	자유공원광장	미술, 사진, 생활공예 전시회 노충선 풍물놀이 7080추억의 통기타, 댄스스포츠 버블체험, 거리인형 퍼포먼스 등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자유공원 광장입니다.  
예전에는 비둘기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배 모양의 전망데크와 등대 형상의 탑이 세워졌습니다.  
틀린 곳은 모두 다섯 곳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  
어디가 다를까?



4월호 '틀린 그림 찾기'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해 알립니다.



안혜원   남구 용현1동	이선영   서울시 영등포구
한재경   연수구 송도동	박희경   서울시 동대문구
김영란   서구 가좌4동	최한희   남동구 만수4동
조선아   남동구 구월2동	윤소희   동구 송현동
채철영   중구 경동	이규명   중구 신생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인천 틀린 그림 찾기에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틀린 그림 찾기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단, 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사진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엽서 당첨자 ※ 독자엽서에 참여한 다섯 분을 선정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승연   고양시 덕양구	김윤진   남구 관교동 467-5	조선아   남동구 구월2동
구은주   남구 주안2동	변상규   남동구 구월2동	



김치 찰작



### 갈매기야 안녕?

도심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려 인천의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갈매기도 사이좋게 줄지어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_ 여인성 동구 화수2동



### 안돼! 아동학대?

씨름? 이종격투기? 던질까? 말까?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과 놀아주지 못했네요. 주말에는 집에서 쉬기만 하는 바쁜 아빠. 모든 아바들의 핑계 아닐까요?  
\_ 박찬용 시흥시 하중동



### 행복바이러스

따뜻한 봄날 햇살 속에 해광학교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행복바이러스 같은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죠? 지금처럼 예쁘게 자라서 행복을 전하는 아이들이 되어 주렴.  
\_ 김태희 부평구 심정동



### 나는야 미래의 대통령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시다!" 미래의 대통령을 꿈꾸는 이 연사 외칩니다~ 귀여운 우리아들, 크고 예쁜 꿈도 무럭무럭 자라길 바랍니다.  
\_ 유미옥 남동구 구월동



### 인천의 여장군

벌써 네 살, 개구쟁이 딸아이가 뽀뽀를 쓰고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여장군 같아요. "모두들 나를 따르라~"  
\_ 이영선 남동구 만수6동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와 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영문사이트), (koreantweeters.com/smartincheon, 한글사이트)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과 쿼즈몬 제 작상은 각 3장)을 드립니다.



## 아이의 눈으로 아이의 세상을 보자

종종 홈페이지 올라 온 부모들의 상담에 답변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곤 한다. 대부분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많이 주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속상해하는 부모들에게 나는 ‘부모의 눈으로 자녀의 세상을 보지 말고 자녀의 눈으로 자녀의 세상을 보라’고 권하고 싶다.

먼저 이 단순한 해법을 받아들이기 전에 단순한 법칙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부모는 키가 크지만, 자녀는 키가 작다. 그래서 부모는 넓게 볼 수 있지만 자녀는 눈앞만 볼 뿐이다. 부모는 다 자랐지만, 자녀는 여전히 자라고 있다. 그래서 부모는 크게 생각하지만 자녀는 작게 생각할 뿐이다. 부모는 어른이 되었지만, 자녀는 여전히 아이다. 그래서 부모가 보는 어른들의 세상을 자녀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부모의 눈으로 자녀의 세상을 바라보면 미성숙한 자녀의 불완전한 생각, 행동이 부족하고 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부모의 기준에서 자녀를 평가하고 결과가 부족해 보이므로 가르치려고 한다. 따라서 칭찬보다 훈계하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고 자족한다. 반면 자녀는 부모가 준 모든 것을 양분 삼아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까? 당신은 한 번이라도 자녀의 입장이 되어 이 부분을 고민한 적이 있는가?

그러나 자녀의 눈으로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면,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어리고 생각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부모의 말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대견하게 여겨진다. 아울러 자녀의 창문에서 그들 눈에 비치는 세상을 바라보면, 그들의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그 작은 창으로 부모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보려고 끊임없이 탐색하는 것을 알게 된다. 미래를 향해 궁금해 하는 자녀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 주고, 답해 줄 때, 자녀의 생각은 무력무력 자랄 수 있다. ‘아! 내가 모르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웃으면서 가르쳐 주고 내가 궁금해 하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자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익숙할수록 그들이 얼마나 대견한지 알게 된다. 둘째, 자녀의 세상에서 함께 창문 밖을 바라보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질문하고 공감할수록 자녀는 자신감과 행복이 쑥쑥 자란다. 셋째, 일상에서 자녀가 잘하는 사소한 것을 발견해 칭찬할수록 부모와 자녀의 행복지수는 높아진다. 넷째,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앞의 것을 부모가 함께 실천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항상 지속적이고 일관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글 마이정  
인천광역시보육정보센터장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 오는 벌판을 가로질러 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남긴 자국은 뒷 사람의 길이 되느니...’

— 서산대사 詩—

자녀는 부모의 인생 성적표라고 할 수 있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 주어야 한다. 부모의 아름다운 흔적은 바로 자녀에게 아름다운 흔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자 위의 시처럼 살아가자.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에게 한없이 멋진 세상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